

석사학위논문

김정한 소설의 인물 연구

- 가해자 유형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문 성 숙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신 덕 일

2001년 8월

김정한 소설의 인물 연구

- 가해자 유형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문 성 숙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1년 6월 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제출자 신덕일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신덕일의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01년 7월 일

심사위원장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김정한 소설의 인물 연구

—가해자 유형을 중심으로—

신 덕 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지도교수 문 성 숙

김정한 소설의 인물유형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고찰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 이유는 소설에서 인물을 창조할 때 피해자의 입장에서 아픔을 그리고 그들이 항거하며 생존하는 삶을 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그의 문학의 특징이라고 보아왔기 때문이다. 연구자들의 관심도 작가의 태도에 따라 피해자 중심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것은 소설을 주인공물 중심으로만 보기 때문에 나온 현상이다. 소설 작품은 주인공물에 의해서만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은 아니다. 부인물과 보조인물, 그리고 그들이 접하고 있는 환경과 많은 사물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진다.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춘다면 김정한 소설에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안타고니스트인 가해자에 대한 고찰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가해자의 입장에서 김정한의 소설을 분석해 봄으로써 소설의 다양한 읽기가 가능해지면서 새로운 해석이 나올 수 있게 된다.

이 연구는 식민지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김정한 소설에 나오는 가해의 양상에 대하여 가해의 정도 및 행동 등에 대하여 고찰하고 가해자를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일본인과 지주는 직접 나서기보다는 꼬나풀이나 마름을 시켜 자기의 의사를 전달하고 어려움을 해결한다. 그들은 남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빼앗아 자기 것으로 바꿔버린다. 증은 일본인이나 지주보다 한술 더 떠서 농민을 괴롭히고 있다. 그들은 수도에 정진하기보다는 토지를 소유한 절의 중이다. 소작료 문제만이 아니다. 극락왕생을 미끼로 남의 논을 거저 차지하고도 모자라 가뭄에 물까지 아예 독점하려 든다. 마름이나 심장, 순사도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동물로 불려진다. 인간 이하의 모습으로 순적 백성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이다. 가해자에 대한 작가의 부정적 시선은 식민 지배자인 일본 자체보다도 그들에 야합하는 친일 조선인에 더 모아지고 있다.

이들 가해자의 유형을 분석하여 보면 권력 추구형, 부 축재형, 민중 수탈형, 체제 신봉형, 폭력 행사형 등 다섯 가지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아 권력과 결탁이 되거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를 이용하여 가해자들은 권력에 가까이 다가가서 민중을 수탈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 있다.

이 연구는 위와 같이 가해자에 초점을 맞추어 김정한의 소설에 나오는 인물의 유형을 알아봄으로써 작품을 균형 잡힌 시선으로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해석을 시도하려고 노력했다.

* 이 논문은 2001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차 례

I. 서 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선행연구 검토	3
II. 가해의 양상	13
1. 일본인의 식민 지배	13
2. 지주의 얼굴 없는 수탈	19
3. 중의 재물 취득	24
4. 마름의 침병 역할	29
5. 순사의 초법적 횡포	34
6. 친일 조선인의 빠른 변신	40
III. 가해자의 유형	46
1. 권력 추구형	46
2. 부 축재형	47
3. 민중 수탈형	49
4. 체제 신봉형	50
5. 폭력 행사형	52
IV. 결 론	54
참 고 문 헌	56
영문초록	59



I. 서론

1. 연구의 목적

우리에게는 특정 작가나 작품에 대하여 너무 고정된 시각으로 평가하여 일반화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물론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평가하여 일반적인 동의를 얻을 수 있다면 특정 작가의 특정 작품은 어떻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론가들에 의해 일반론을 획득한 것처럼 평가가 굳어져 버린다면 각도를 달리해서 바라보는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고정된 관점으로 문학을 평가하는 것은 문학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본다. 문학은 작가에 의해 창조된 것이지만, 작품 자체의 생명력으로 그 의미와 해석은 항상 새롭게 인식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요산 김정한 문학에 대한 평가는 더욱 그렇다. 대부분의 평자는 그의 문학을 농민 문학, 민족문학, 리얼리즘문학, 저항문학 등으로 평가하고 있다. 선행연구자들의 이런 일반론적인 평가 자체를 부정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좀더 다른 각도에서 그의 문학을 분석해 볼 필요도 있다. 왜냐하면 위의 평가는 대부분 작품 속의 주인공들을 피해자라는 시각에서 바라본 견해이기 때문이다.

소설이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에는 한 마디 용어로 평가될 수 있는 내용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쉽게 파악될 수 있는 내용 이외에 감추어진 더 많은 메시지를 작가는 독자에게 제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 독자들은 이런 일반론에 파묻혀 작품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기 일쑤다. 그 이유는 소설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안목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모든 독자들이 이렇게 이론가들이 분석해 놓은 일반론에만 얽매었다면 작품에 대한 새로운 해석은 나오기 어렵다. 특정 작품은 특정 계열의 특정 성격이라고, 또 특정 작가는 특정 사조의 작품만 쓴다고 단정해 버린다면 작품이 지니고 있는 보다 많은 속성, 작가가 그리고 있는 다양한 삶의 모습을 놓치기 십상이다. 이것은 자유롭게 창작된 작품이나 창

조적인 작가에게 오히려 굴레를 씌워서 읽어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소설은 주인공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문학 양식이다. 그러나 소설에는 주인공만 등장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삶이 복잡다단하게 얽혀 있듯이 소설 속의 이야기도 여러 작중 인물에 의해서 이야기가 전개된다. 이야기 전개에 따라 필요한 만큼의 인물이 등장해야 비로소 다양한 인간의 삶과 갈등이 드러나는 소설이 된다. 이들 사이에는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인과 관계가 있어서 하나의 플롯이 이루어지고 소설이 되는 것이다.

여러 제약을 받는 단편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작중 인물에 의해서 하나의 이야기로만 전개하여 가는 소설은 매우 드물다. 설혹 하나의 인물만 나오는 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작중 인물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나 자신의 내면 세계와 같은 다른 요소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이상의 「날개」에는 주로 ‘나’밖에 안 나오지만 그 ‘나’는 로빈슨 크로스 같은 단독자 ‘나’가 아니라 식민지라는 숨막히는 현실 속에서 자아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발버둥치는 ‘나’인 것이다. 그것이 갈등으로 이어지고 한 편의 소설로서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위에서 말한 특정 작가나 작품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같은 뿌리에서 나와서 색깔만 달리하는 견해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김정한의 경우만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내려지는 농촌작가, 농민작가, 민족문학 작가라는 평가는 같은 계열의 평가에서 왔음을 알 수 있다. 김명인은 김정한 소설을 논하면서 농촌문학의 소재주의를 확대해서 농민문학, 이를 시대적 정황에 비추어 민족문학¹⁾, 방법론상으로 리얼리즘문학, 저항문학 등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결국 이런 평가는 피해자라는 하나의 각도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이런 일반적인 평가는 그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작가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하는 차원을 중시한 관점인 것이다. 즉, 서술의 초점이 피해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농민문학이고 리얼리즘문학이 된다.

이 연구는 김정한의 소설에 대하여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 성과와는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위에 언급된 농민문학, 민족문학, 리얼리즘문학, 저항문학이란 일반적인

1) 김명인(1985), “민족문학과 농민문학”, 백낙청·염무웅 편, 「민족문학의 현단계Ⅳ」, 창작과 비평사. p.208.

평가는 모두 주인공인 피해자의 입장에서 작품을 바라보려는 데서 나온 결과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있으면 당연히 가해자가 존재하게 마련이다. 지금까지 피해자의 입장에서 김정한의 문학을 평가해 왔다면 이제 정반대의 입장인 가해자라는 각도에서 그의 문학을 평가해보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의도이다.

이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김정한의 문학에서 가해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가해자는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존재하는가? 일방적 피해자인 또췌이나 들깨가, 또는 갈밭새 영감과 사뱃재 영감이 무엇 때문에 분노하며 누구에게 저항하는가? 그들이 저항하고자 하는 대상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 대상은 일제라든가 권력자 같은 추상적 존재뿐만 아니라 이와모도 참봉이나 산바 가라스 무리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작품의 표면에 등장하는 구체적 실체이다. 피해자에게 압박을 가하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하며, 어떤 계급의 사람들이며, 어떤 삶을 살아왔으며,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피려고 하는 것이다. 즉, 그의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의 유형 중에서 가해자의 행위와 유형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소설의 다양한 읽기가 가능해지고 새로운 해석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2. 선행연구 검토

김정한 문학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비교적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문학의 여러 면에서 검토한 종합적인 연구에서부터 문학의 어느 한 측면, 또는 특정 시대의 몇 작품, 특정 경향의 몇 작품만 검토한 부분적인 연구도 있다. 이를 종합하여 기존의 연구 성과 중 중요한 것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민문학으로서의 특성에 관한 연구²⁾이다. 박덕은은 그의 소설이 한국 농민문학의 전형적 양식을 수립하였고 농민문학의 존재 이유를 확보하였다고 하였다.

2) 김상일(1970), “토속적 인간상”, 『한국단편문학대계 IV』, 삼성출판사.

김상수(1977), “김정한 농민문학의 성격”, 『국어국문학』13,14집, 부산대학교.

박덕은(1980), “김정한의 소설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신경림(1983), “농촌현실과 농민문학”, 『농민문학론』, 온누리.

둘째, 농민문학을 바탕으로 민족문화적 성격을 규명하려 한 연구³⁾이다. 백낙청은 「수라도」를 분석하면서 문화의 변혁과 성장을 통해 살아있는 문화로서 민족의 저력을 보여 주며 시민의식, 민중의식을 강조한 문학이라 하였다.

셋째, 작품에 나타난 리얼리즘의 성격에 관한 연구⁴⁾이다. 김병걸은 따라지들을 역사 안으로 끌어들이 인간됨을 회복하는 그의 문학은 리얼리즘 문학의 산맥이 된다고 하였다.

넷째, 문체에 관한 연구⁵⁾이다. 김인배는 어사의 용법 및 빈도를 조사하고 애용어구의 성격을 밝혀 작가의 특성을 문체를 통하여 찾아냈다.

다섯째, 작중인물에 관한 연구가 있다. 김정한 소설의 인물 유형에 대하여 독립적 항목으로 언급한 연구로는 김영화, 박덕은, 박홍서, 박종무, 양연규, 김양라, 한동우, 최상윤 등의 성과가 있다. 그 중 박홍서, 박종무, 양연규, 한동우는 인물유형을 연구한 학위논문이고 나머지는 김정한에 대한 작가론 속의 일부로서 인물 유형에 대하여 연구한 것이다.

김영화⁶⁾는 김정한 소설에 나오는 인물 유형을 세 갈래로 나누고 있다. 첫째 역사의 피해자요 권력의 희생자인 순적 백성⁷⁾, 둘째 민족혼을 지닌 지식인, 셋째 언제나 권력과 결



- 3) 임현영(1972), “수난자의 문학”, 『월간중앙』 1972. 5월호.
백낙청(1973), “문학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 『창작과 비평』, 1973. 여름호.
김영화(1975), “민족주의 문학의 재양상”, 『현대문학』, 1975. 5월호.
염무웅(1979), “김정한소론”, 『민중시대의 문학』, 창작과 비평사.
- 4) 구중서(1970), “리얼리즘문학의 지맥”, 『민족문학의 길』, 새발.
김병걸(1972), “김정한문학과 리얼리즘”, 『창작과 비평』, 1972년 봄.
오양호(1978), “현실과 산문정신”, 『요산문학과 인간』, 요산 김정한 선생 고회기념 사업회.
정한숙(1983), 『현대한국소설론』 고대출판부, 1983.
김종철(1984), “저항과 인간해방의 리얼리즘”, 『한국문학의 현단계 III』, 창작과비평사.
박재범(1995), “김정한 소설연구”,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 5) 김인배(1977), “김정한 소설의 문체연구”,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
김정자(1984), “모티브 구조로 본 김정한·이주홍 소설의 문체적 특성”, 『어문교육론』8집, 부산대학교.
정경수(1986), “김정한 소설 문체 연구”, 『국어국문학논집』 제7집, 동아대학교 문과대학.
- 6) 김영화(1977), “역사와 민족”, 『현대한국소설의 구조』, 태광문화사, pp.141~144 참조.
- 7) “舜 임금 때의 백성이란 뜻인데 길에 물건이 떨어져 있어도 채 것이 아니면 줍지 않고

탁하여 가해자의 위치에 서서 민중을 괴롭히는 인물로 구분하는 것이 그것이다.

첫째 유형의 인물로는 「수라도」의 가야부인, 「모래톱 이야기」의 갈밭새 영감과 윤춘삼, 「유채」의 허생원, 「산거족」의 황거칠 노인, 「사하촌」의 고서방, 「항진기」의 두호, 「지옥 변」의 울산이와 차돌, 「뒷기미 나무」의 심속득, 「옥심이」의 옥심이, 「사뱃재」의 송노인 등을 들고 있다.

둘째 유형의 인물로는 「수라도」의 오봉 선생의 삼대, 「산거족」의 황거칠 노인의 조부와 부친, 「인간단지」의 우중신 노인 등을 들고 있다.

셋째 유형의 인물로는 「수라도」의 이와모도 경부보, 「산거족」의 호동팔 형제, 「지옥 변」의 곤도 교장과 보꾸보도 순사와 하세가와, 「모래톱 이야기」 및 「유채」에 나오는 어떤 유력자, 「인간단지」의 박성일 원장, 「산거족」의 거물, 「사하촌」의 고자쟁이 이시봉 등을 들고 있다.

박덕은⁸⁾은 김정한의 소설에 등장하는 작중인물의 유형을 평면적 인물(flat character)과 입체적 인물(round character)로 양분하고 있다. 그 중 후자의 유형은 극히 드물고, 전자의 유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였다. 전자는 포오스터(E. M. Forster)의 말대로 단일관념이나 단일성질을 가진 인물, 즉 한 작품 안에서 성격이 변화하지 않는 인물을 말하고, 후자는 한 작품 속에서 사건의 진전에 따라 변화하는 인물을 말한다.⁹⁾

김정hani 그리고 있는 평면적 인물은 다시 두 종류의 인물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소설을 이끌고 나가는 주인공(protagonist)이요, 다른 하나는 이에 대항하는 어떤 존재 즉 적대자(antagonist)이다. 「기로」의 두보와 김만식은 평면적 인물의 좋은 예이다. 두보는 비인간성과 불의에 대해 싸우는 인물로, 김만식은 두보의 적대자로 등장한다. 에드윈 뮈어(Edwin Muir)는 이러한 인물들을 가리켜 정적 인물(static character)이라 부르고 있다. 그 이유는 이들이 독자의 정서적 눈으로 쉽게 알 수 있으며 환경의 변화에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항상 독자의 마음에 남아서 강렬한 인상을 남겨주는 강점을 지니

남을 해치지 않고 자기 노력대로 살고 안 살아지면 남을 원망하기보다 자기 자신에게 책임을 묻는 인간을 말한다.” 대답, ‘약자의 설움은 무엇인가?’, 「문학사상」1973년 10월, p.214.

8) 박덕은(1980), “김정한의 소설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pp.53~56, 참조.

9) 정한숙(1975), 「소설기술론」, 고려대학교 출판부, pp.88~90. 참조.

고 있기 때문이라 했다.¹⁰⁾

김정한의 작중인물들은 대부분 정적 인물에 속하고 있다. 그 예로 「모래톱 이야기」의 갈밭새 영감, 「유채」의 처생원, 「인간단지」의 우중신 노인, 「어떤 유서」의 송노인, 「수라도」의 가야부인, 「항진기」의 두호 등이 프로타고니스트에 해당된다. 「항진기」의 이시봉, 「수라도」의 이와모도, 「뒷기미나루」의 말대가리 도당, 「산거족」의 호동팔 등이 안타고니스트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이들은 포괄적인 매력이 적고 전형적인데서 오는 싫증을 독자에게 주는 약점이 있다. 독자들에게 박진감 있게 충격을 주거나 공감을 주는 면이 적은 대신, 독자들로 하여금 신념을 확인케 해주는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신념은 김정한 소설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이 신념은 독자들이 작중인물을 대할 때 그 인물을 신뢰하게 해주며 독자로 하여금 독자 특유의 신념을 소유하도록 해주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에 비해 그의 소설들에서 입체적 인물의 출현은 극히 희소하다. 그의 전작품을 통해 보더라도 입체적 인물들로 볼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옥심이」의 옥심, 「기로」의 은파, 「지옥변」의 수남 등을 들 수 있을 뿐이다. 이들과 “작중인물이 입체적 인물인가 아닌가를 시험하는 것은 독자에게 놀라움을 줄 수 있느냐의 여부로 결정된다.”¹¹⁾는 포오스터의 말에 비추어 볼 때, 입체적 인물들로서 다소 미흡한 성격의 일면이 있기조차 하다.

박홍서¹²⁾는 김정한의 소설을 창작 연대에 따라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A. 전기작품에서 첫째, 사회구조의 모순으로부터 압박을 받는 인물유형으로 a. 적극적 항거를 하는 인물과 b. 소극적 행동을 하는 인물, 둘째, 사회구조의 모순을 상징하는 착취자의 유형으로 a. 권력과 결탁하여 민중을 수탈하는 인물과 b. 한국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인, B. 후기 작품에서는 첫째, 민족혼을 지키려는 인물유형으로 a. 땅을 근원으로 하는 순적 백성 b.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지식인 c. 한국적 여인상, 둘째, 민족혼을 말살하려는 인물유형으로 a. 일제와 결탁하여 착취하는 인물 b. 권력지향적인 수탈형 인물 c. 공권력을 행사하는 관의

10) 정한숙(1975), 상계서, pp 88~90. 참조.

11) 정한숙(1975), 상계서, p.90.

12) 박홍서(1986), “김정한 소설 인물유형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pp.12~60, 참조.

인물로 나누어 김정한의 중요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을 각기 a, b, c……하는 식으로 표로 만들어 대입해 보이고 있다. 이 중 A와 B의 첫째에 해당하는 인물 유형은 피해자이고, 둘째의 착취자 유형과 민족혼을 말살하려는 인물 유형이 이 연구에서 말하는 가해자로서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가 정리한 표에 의하여 가해자인 인물의 예를 들어보면, 전기 작품에서는 「사하촌」의 중, 산지기, 이시봉, 진수, 순사, 「옥심이」의 감독, 십장, 「항진기」의 말음, 「기로」의 김만식, 순사, 구장택, 「낙일홍」의 나까무라 교장, 요다 사부로, 「추산당과 결사рам들」의 추산당 등을 들고 있다.

후기 작품에서는 「모래톱 이야기」의 젊은 비서, 「과정」의 검사, 간수, 딱부리, 「유채」의 청년신사, 「축생도」의 어떤 의사, 보건소, 「굴살이」의 보험장이. 「수라도」의 이와모도 경부보, 이와모도 참봉, 구장, 순사, 「뒤틀기미 나루」의 김씨, 키다리, 말대가리, 「지옥변」의 권동준 교장, 보꾸보도 순사, 하세가와 배급소장, 「독메」의 구장, 면서기, 「인간단지」의 박성일 원장, 면사무소 직원, 구장, 순경, 「실조」의 마을 청년, 구장, 「어둠 속에서」의 수미, 야마가와, 사단, 「사밭재」의 순사, 「산서동 뒷이야기」의 내무계장, 「회나뭇골 사람들」의 박면장, 군 산림 계장, 「어떤 유서」의 상출 청년, 「위치」의 고등계장, 경방단, 검사, 「교수와 모래무지」의 총장, 학생과장, 「슬픈 해후」의 군복 등을 들고 있다.

박종무¹³⁾는 김정한 소설의 인물 분석 기준을 사회적 척도에서 세워서 인간 사회의 가치를 붕괴시키는 반사회형(反社會型), 개인적 성실도가 매우 높은 사회 유지형(社會維持型), 성실성에 더하여 공익(公益)에 헌신하는 사회 개혁형(社會改革型)으로 구분하였다.

반사회형으로는 「어둠 속에서」의 수미 교장과 야마가와, 사단, 「사밭재」의 순사, 죽대 없는 청년, 「수라도」의 이와모도 참봉, 「지옥변」의 곤도 교장, 「사하촌」에 등장하는 승려들, 「유채」의 비서, 「추산당과 결사рам들」에서 배금주의 무리인 추산당과 구룡이, 「어떤 유서」의 이성복 등장, 사회 유지형 인물로는 「추산당과 결사рам들」의 아버지, 「모래톱 이야기」의 건우 어머니와 나(건우의 선생), 「축생도」의 바우, 사회 개혁형 인물로는 「제3병동」의 김종우 의사와 「축생도」의 수의사, 「교수와 모래무지」의 이교수, 「수라도」의 오봉

13) 박종무(1987), “김정한 소설의 작중인물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pp.30~38, 참조.

선생 일가, 「인간단지」의 우중신, 「산거족」의 황거철을 들고 있다.

양연규¹⁴⁾는 김정한 소설의 인물을 가해자와 피해자 중간자의 세 유형으로 나누어 삼각형의 구조로 설명하고 있다.

가해자로 「사하촌」의 보광사 승려, 「옥심이」의 백암사 승려, 「항진기」의 읍내 지주, 「기로」의 일제, 「낙일홍」의 요다 사부로, 「추산당과 결사рам들」의 추산당, 「모래톱 이야기」와 「유채」에 등장하는 유력자, 「축생도」, 「제3병동」, 「인간단지」, 「산거족」에 나타난 부조리한 현실, 「수라도」, 「어둠 속에서」, 「사뱃재」, 「회나뭇골 사람들」에 나오는 일제의 침략정책, 「뒷기미 나루」, 「지옥변」, 「산서동 뒷이야기」, 「오끼나와에서 온 편지」, 「슬픈 해후」에 나타난 모순된 정치현실을 들었다.

피해자로 「사하촌」의 소작인, 「옥심이」의 옥심이, 「항진기」의 태호, 「기로」의 은파, 「낙일홍」의 박재모, 「추산당과 결사рам들」의 명호, 「어둠 속에서」의 보통학교 교사인 김인철, 「슬픈 해후」의 대학교수인 성수를 들고 있는데 이들 중 교사인 박재모, 김인철, 대학생인 명호, 대학교수인 성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농부, 백정, 도시의 빈민, 문둥이 등 현실 사회에서 하층계급이 된다.

중간자로는 「사하촌」의 이시봉, 「옥심이」의 안십장, 「항진기」의 손가, 「기로」의 김만식, 「모래톱 이야기」, 「산거족」, 「유채」에 나오는 유력자와 비서, 「축생도」의 보건소 직원과 어떤 의사, 「제3병동」의 서무과장, 「수라도」의 형사, 「뒷기미 나루」의 기관원, 「지옥변」의 산바 가라스 무리와 짜배기, 사장, 「인간단지」의 박성일 원장, 「어둠 속에서」의 수미 교장과 사단, 「사뱃재」의 넓적이 순사 「슬픈 해후」의 기관원 등을 들고 있다.

김양라¹⁵⁾는 김정한 소설의 구성에 있어서 서두 결말의 특성과 의미, 인물의 특성, 이원적 조화의 서술표현에 대해서 연구했다. 그중 인물의 특성은 양연규의 분류를 거의 그대로 이어받아 가해자, 피해자, 중간자로 나누어 중간자에 대하여 고찰하고 있다. 중간자로서 「사하촌」의 이시봉과 쇠다리 주사, 「옥심이」의 안십장, 「항진기」의 손가, 「기로」의 김만식을 들었다. 이들은 피해자의 어려운 상황을 극한 상황까지 몰고 가면서 피해자가 강

14) 양연규(1987), “김정한 소설의 인물연구”,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pp. 6~25, 참조.

15) 김양라(1993), “김정한 소설연구”.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대학원, pp.40~56, 참조.

한 저항의지를 표출하게 되는 촉매자 역할을 한다고 하고 있다. 이런 유형의 인간은 광복 이후의 작품에도 나타나는데 「모래톱 이야기」의 강패 청년, 「제3병동」의 서무과장, 「축생도」의 보건소 직원과 의사, 「수라도」의 이와모도 참봉과 아들인 형사, 「뒷기미 나루」의 기관원, 「지옥변」의 산바 가라스 무리, 「인간단지」의 박성일 원장, 「산거족」의 이춘이란 청년 신사, 「사뱃재」의 늪적이 순사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양연규와 김양라의 연구에서 제기한 이런 중간자의 존재에 대하여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시봉이나 이와모도 참봉 산바 가라스 무리 등은 중간자라기보다는 농민들에게 직접 가해를 하고 있는 가해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머지 중간자에 포함된 인물들도 사실은 모두 권력자의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해자이기는 마찬가지이다. 결국 중간자라는 인물 유형은 김양라의 연구처럼 ‘중간자는 저항의식의 촉매’라는 역할을 강조하다 보니 구색을 갖추기 위해 만들어진 유형이 되고 말았다. 이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서 중간자라는 삼각형의 모양을 갖추기 위해 인물 유형을 만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김정환의 소설에 나오는 인물 유형을 가해자와 피해자의 두 갈래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한동우¹⁶⁾는 김정환의 작중인물을 노인상을 중심으로 살피고 있다. 그의 작품은 작가의 직접 체험이 작품과 동질을 이룬다고 논증한 다음 작품 속에 등장하는 노인의 인물 유형을 세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

첫째 유형은 불굴의 노인상으로 「인간단지」의 우중신 노인과 「산거족」의 황거칠 노인을 들고 있다. 둘째 유형은 생존권을 위해 투쟁하는 의지의 노인상으로 「모래톱 이야기」의 갈밭새 영감과 「유채」의 허생원, 「산서동 뒷이야기」의 박노인을 들고 있다. 셋째 유형은 부조리한 현실에 저항하는 노인상으로 「수라도」의 오봉 선생, 「사뱃재」의 송노인, 「희나뭇꽃 사람들」의 박선봉 노인, 「어떤 유서」의 송노인을 들고 있다. 이들 세 유형의 노인상은 모두 강자나 가진 자들과의 공존을 거부한다. 게다가 카멜레온식으로 변하는 이중성과 끝없는 물질적 탐욕을 추구하는 자들을 고발하고 있다.

최상윤¹⁷⁾은 전기 작품을 중심으로 현실 인식과 반영 양상을 분석하고 작중 인물의 성

16) 한동우(1990), “김정환 소설의 작중인물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pp.41~71, 참조.

격 양상을 고찰하고 있다. 그는 작품에서 인물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나서 김정환 스스로의 분류에 따라 작품 속에 등장하는 유형을 고찰하고 있다. 순직 백성형(舜的百姓型), 미지근형, 아첨형(阿諛型), 불신파형(不信派型), 영금대왕형¹⁸⁾으로 분류하고 여기에 저항형(抵抗型)을 추가하여 모두 여섯 개 항으로 분류하여 전기작품 9편에 등장하는 34명 중요 인물의 양상을 파악하였다.

첫째, 순직 백성형이란 요순시대의 백성들과 같이 어질고 현실에 순응하는 단순한 작중 인물을 의미한다. 「그물」의 송또쫄, 「항진기」의 박첨지와 어머니, 「사하촌」의 치삼노인, 「옥심이」의 허서방과 옥심이, 「기로」의 은과, 「월광한」의 은순, 「낙일홍」의 박재모와 그의 아내 등이다.

둘째, 미지근형은 뚜렷한 개성이나 소신도 없고 욕심도 없는 그야말로 이도 저도 아닌 성격의 소유자이다. 「추산당과 결사사람들」의 명호와 「월광한」의 나 등이다.

셋째, 아첨형은 능력도 없으면서 아첨 하나로 처세하며 출세도 하고 잇속도 차리는 인물이다. 「낙일홍」의 요다 사부로, 「그물」의 김주사, 「사하촌」의 이시봉과 산지기, 「항진기」의 손가, 「기로」의 만식, 「그러한 남편」의 후지모리와 양주사 등이다.

넷째, 불신파형은 김정환의 전기 작품에서는 한 명도 등장하지 않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다섯째, 영금대왕형은 겉과 속이 다르며 잇속 앞에서는 항상 영금한 인물이다. 「추산당과 결사사람들」의 추산당과 구룡 아저씨, 「그물」의 박양산, 「사하촌」의 쇠다리 주사와 진수, 「항진기」의 칠촌 아저씨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여섯째, 저항형은 불의나 부정에 저항하는 인물이다. 「항진기」의 두호, 「사하촌」의 또쫄이, 철한이, 들개, 봉구, 「그러한 남편」의 강신규, 「기로」의 두보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상 작중인물 34명을 백분비로 분류하면 순직 백성형은 10명(29.1%), 미지근형은 3명(8.3%), 아첨형은 8명(23.2%), 불신파형은 없고, 영금대왕형은 6명(17.2%), 저항형은 7명(20.2%)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인 인물(순직백성형, 저항형)과 부정적인 인물(아부형, 영

17) 최상윤(1999), “김정환 작품론”, 『한국현대소설연구』. 동아대학교 출판부. pp.96~100, 참조.

18) 김정환, 창작론 강의노트에서.

금대왕형)은 17명 : 14명으로 긍정적인 인물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로써 김정한이 추구하는 인물이 주로 순직 백성형과 저항형 인물임을 알 수 있고, 나아가 그의 문학 세계의 지향점이 어디 있는가를 시사해 준다. 즉 그는 순직 백성형과 같은 힘없고 권력 없는 따라지 인간, 억눌리고 보상받지 못하는 인간에 대한 따뜻한 애정을 드러낸다. 그리고 사회의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는 항상 저항해야 된다는 것을 작중 인물을 통해 암시하고 있다. 김정한의 “주변의 환경이 우리의 생활에 부적합하다고 여길 땐 분연히 일어나 저항하는 것이 문학인 본연의 모습”이라 주장하는 평소의 신념과 일치되는 양상이라 할 수 있다.

위에서 살핀 대로 지금까지 이루어진 김정한 소설에 나타난 인물 유형 연구의 공통점은 인물을 크게 피해자와 가해자로 나누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면서도 연구의 초점은 거의가 주인공을 중심으로 하여 피해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다. 물론 김정한의 대부분 소설이 피해자가 당하는 아픔과 그 극복 양상이라는 휴머니즘적인 시각에서 쓰여지고 있으니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그 역으로 가해자의 입장에서든 문학을 바라보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가해자가 없는 피해자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작중 인물의 숫자로는 가해자도 피해자에 못지 않게 많이 등장하고 있기도 하다.

위 인물 유형 연구 가운데 가해자 유형을 추출해보면, 김영화의 연구에서 ‘민중을 괴롭히는 인물’, 박홍서의 ‘착취자 유형 중 권력과 결탁하여 민중을 수탈하는 인물과 한국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인’, ‘민족혼을 말살하려는 인물 유형으로 일제와 결탁하여 착취하는 인물, 권력지향적인 수탈형 인물, 공권력을 행사하는 관의 인물’이 여기에 해당한다. 박종무의 경우에는 ‘반사회형 인물’, 양연규, 김양라의 연구에서는 ‘가해자’와 ‘중간자’, 최상윤의 ‘아침형’과 ‘엠클대왕형’이 가해자 유형에 해당한다.

이 밖에 이영선¹⁹⁾은 미적 범주에 의한 분석으로 김정한의 소설을 숭고미, 비극미, 우아미, 희극미로 나누어 그의 작품세계를 전반적으로 지배하는 미의식은 숭고미의 의식을 가진다고 하였다.

이 연구 성과들은 그의 소설이 나타내고 있는 성격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몫을 하고 있

19) 이영선(1987), “김정한 작품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다. 하지만 대부분 지나치게 개괄적이거나 지엽적, 단편적인 평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서 김정한 문학의 특징을 드러내는 본질적인 요소들을 다양한 시각으로 충분히 해명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특히 석사학위 논문에서는 김정한 문학에 대한 평가가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김정한 문학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나온 박사학위 논문은 단 한 편밖에 없다.²⁰⁾

이 연구에서는 이들 반사회적 가해자의 인물이 사회적 역할인 직업을 통하여 어떻게 구체적으로 가해를 하고 있는가를 작품을 통하여 먼저 살피고자 한다. 그리고 나서 이들을 가해의 의도 및 목적에 따라 유형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곧 권력 추구형, 부 축재형, 민중 수탈형, 체제 신봉형, 폭력 행사형 등 다섯 가지의 유형이 그것이다.

이제 일제 식민지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김정한의 소설에서 가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해자의 유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자.



20) 조갑상(1991), “김정한 소설연구”, 박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II. 가해의 양상

1. 일본인의 식민 지배

행동과 저항의 작가로 알려진 그의 소설에는 식민지 시대에 행동과 저항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일본인이 표면에 나오는 작품은 그리 많지 않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일본인도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아주 적은 비중으로 등장하고 만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우선은 일본인이 직접 가해자로 나서지 않고 꼬나풀이나 하수인을 시켜 가해하면서 자신은 뒤에 숨어 있기 때문이다. 식민 지배자인 일본인들은 친일 조선인인 하수인이나 꼬나풀을 시켜 온갖 만행을 저지르게 하면서 자신은 뒤에 숨어서 직접적인 저항의 칼날이 날아오는 것을 비켜간다. 그러면서도 일본인들은 권력이나 집단의 힘을 이용하는 등 교묘하게 가로채는 방법으로 조선인이 있어야 할 자리와 부를 독점하려고 한다.

「낙일홍」에서 박재모의 자리를 부당하게 차지하는 요다 사부로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다.

재모는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요다모노로'라고 놀려대던 '요다 사부로'의 과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재모는 ××보통학교에서 수석 훈도로 있을 때, 이 요다란 사람도 그 학교의 한 훈도였다. 그는 일쭉 슬리퍼로 학생들의 뺨을 잘 때렸고 한 번은 주판으로 자기 반 학생의 머리를 벌려 놓곤 동맹 휴학까지 당했으나, 워낙 상관에게 대해서 아부가 능란한 놈이라 무고히 학생 몇만 희생을 시키고 자기는 무사히 되었다. 그러나 세 버릇 세 심보라 말경에는 재가 가르치던 여학생 하나의 신세를 망친 뒤엔 하는 수 없이 다른 학교로 전근이 되어 간 인간이다. 그래서 동료로부터 '요다모노로'란 별명까지 얻었으며 재모로부터는 동정도 많이 받았고, 또 꾸중도 적잖게 들었다—말하자면 키는 작아도 피는 많은 인간이었다. 「낙일홍」, 「낙동강 1」, p.250.²¹⁾

「낙일홍」의 박재모는 중년 교사이며 3남매의 가장으로서 6년 전에 이곳 S분교로 부임해왔다.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도 학교 일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학교 터를 닦고 기부금을 받으러 다니며 노인들을 계몽하기도 한다. 어느 정도 학교 형태를 만든 이곳에 정착하기를 소망하지만 결국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일본인 교사인 요다 사부로에게 쫓겨 다시 궁벽한 갯마을 갈고지 간이학교로 옮겨 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 작품은 정당하게 자기의 역할을 다하여 온 사람이 권력과 부정에 의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불이익을 받는 사회를 고발하고 있다. 플롯으로 보면 단순 구성의 이야기이다. 하지만 단순함 속에서 사회의 혼란이나 가치관의 교체기에 있어서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는 한 기성인의 모습을 심도 있게 보여주고 있다. 사회의 부조리와 보이지 않는 권력의 횡포, 믿어지지 않는 부정의 횡행과 공평하지 못한 인사 등 당대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참되게 사는 한 교사의 삶을 통하여 구체화하고 있다.

위 인용에 나타났듯이 요다 사부로는 교사의 기본적 양심도 없는 인물이다. 슬리퍼도 모자라서 주판으로 학생의 머리를 깨뜨리고, 여학생의 신세를 망친 인물이다. 그런 인물이 군수와 주민들이 더 있어 달라는 간곡한 요청이 있는 박재모를 물리치고 이 학교에 올 수 있는 것이 식민지의 현실이다. 식민지 사회에서 그는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정을 저질러도 용서되는 식민 지배자인 일본인이다. 그러나 그는 곁에 드러나지 않게 뒤에 서만 손을 쓴다. 박재모와 직접 부딪치지 않고 전출 명령서와 ‘사택 기타 지장 없도록’이라며 사택을 비워달라는 전보 용지 한 장만 보내온다. 이는 일본의 식민지 경영의 교활함이 드러난 결과이다. 박재모는 이런 부조리한 현실에 대항하여 싸워야 옳다. 정당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여 얻어내는 적극적 인물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박재모는 너털웃음을 웃으면서 일찍 보지 못했을 만큼 붉고 아름다운 누엇누엇한 낙일(落日)을 보며 기꺼이 갈고지 학교로 가려 한다. 현실적으로는 일본인에게 패배하여 밀려나지만 붉고 아름다운 낙일을 통하여 아직 끝나지 않은 그에게 남은 삶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21) 앞으로 작품 인용은 광복 이전의 것은 “김정환(1994), 「낙동강 1」, 시와 사회사”, 광복 이후의 것은 “김정환(1994), 「낙동강 2」, 시와 사회사”에서 인용한다. 다만 「축생도」, 「지옥변」, 「산거족」, 「산서동 뒷이야기」는 “김정환(1971), 「인간단지」, 한얼문고”에서 인용한다.

이는 한 편으로는 식민지 지배를 당하며 작품을 발표할 때마다 검열을 받아야 하는 작가로서의 직접 표현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으로도 보인다.

「어둠 속에서」의 수미 교장과 일인 교사 야마가와도 식민 지배자의 전형이다. 소설은 김인철 교사의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저항이 주된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가 저항하는 대상은 ‘단결’과 ‘통일정신’만을 강요하는 획일화된 일본 제국주의이고 이를 신봉하는 수미 교장 같은 일본인이다.

‘수미’란 교장은 아주 키가 작은 데다 박박 깎은 두상마저 작았다. 몹시 둥그랗고 작은 두상을 보자, 인철은 문득 탱자를 또 연상했다. 그 탱자 같은 두상의 앞면에 약간 튀어나온 듯한 입이 인상적이었다.

‘행티가 있겠는걸…….’

냉기가 도사린 듯한 ‘수미’씨의 입모습에서 그는, 식민지에 나와있는 전형적인 일본인 관리라는 것을 느꼈다. 「어둠 속에서」, 「낙동강 2」, p.324.

탱자 같은 인상엔 박박 깎은 머리는 위에 묘사된 대로 전형적인 일본인 관리의 모습이 다. 행티 부릴 일을 찾아 두리번거리는 모습은 인상부터가 가해자의 전형적 외모로 손색이 없다.

결국 이 유희 사건이 김인철 교사로 하여금 ‘수미’씨에게 잘못 보이게 한 두 번째 꼬투리가 되었다. 첫 번째 실수(?)는 물론 부임 인사를 조선말로 한 것이었지만.

세 번째의 트집거리는 수업시간표의 과목 이름을 자기 맘대로 고친 일이었다. 교실 입구마다 걸려 있는 수업시간표에 모두 ‘선어’라고 적혀 있는 것을 김인철 교사는 자기 담당인 2학년 교실 것만을 ‘선어’ 대신 ‘조선어’라고 고쳐 놓았던 것이다. 「어둠 속에서」, 「낙동강 2」, p.333.

가을 운동회가 박두해서 부임한 초임인 2등 훈도 김인철에게 식민지의 교육 현실은 어려움만 주었다. 일본말 애용이 강요되던 시대에 대뜸 우리말로 부임 인사를 하면서 일본인 교장인 수미의 눈 밖에 난 김인철은 가을 운동회의 2학년 유희로 ‘허수아비’ 놀이를 준비한다. 젊은 열과 성으로 열심히 준비하여 천 명이 넘는 관중들을 모두 웃게 만들어

나름대로 성공을 한다. 다만 수미 교장과 황 교감만 웃지 않았다. 복장 통일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허수아비 자체가 통일된 모습이 아니기에 김인철은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수미는 그것이 아니다. 통일된 모습만을 강요하는 일제 식민지 통치의 한 면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장면이다.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모든 사람을 웃게 만들었지만 복장 통일이 안 되었다는 현실성이 없는 이유 하나만으로 교장은 나쁘게 평하고 학부형들 앞에서 폄훼하고 있다. 민족주의 색채를 드러내는 조선인 교사에게 노골적인 가해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후 김인철은 시간표에 적혀 있는 ‘선어’를 정식 명칭인 ‘조선어’로 고쳐 놓고, 토요일 오후마다 하던 교장 사택 청소를 못하게 하고, 조선어 교육의 가부를 학부형에게 묻는 형식적인 설문지에 팔 할이 넘게 조선어를 가르쳐 달라고 선택하게 한다. 그리고 그때마다 수미 교장과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른다. 수미 교장의 뒤에는 같은 일본인이며 수미와 한통속으로 수미의 의도를 그림자같이 따르는 야마가와 교사가 있다.

「어둠 속에서」에는 일제의 강압적 정책이 시행될 때마다 일제가 취하는 방법이 소개되어 있다.



그러는 동안에 김인철 교사에게는 또 한 번의 고비가 다가왔다. 예의 동방요배(東方遙拜)에 관한 일이었다 — 상부로부터 하달 사항이라면서 학생들로 하여금 아침 모임 때마다 왜왕이 있는 동쪽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이었다 (일인들은 이런 정치를 곧잘 했다. 그 뒤에 창씨개명 때도 그랬고, 학병 지원제도도 그런 식으로 얼버무렸거니와, 명령이 아닌 권유 형식이면서 결과는 명령과 똑같은 구실을 하도록 하는 수법이였다). 「어둠 속에서」, 「낙동강 2」, p.335.

동방요배만이 아니다. 수미는 상대방이 옳은 말을 하거나 강력하게 반발을 하면 그 자리에서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늘 정면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이면에서 일을 꾸미는 성미였다.’ 교육령을 바꾸어 ‘조선어’가 정규과목에서 떨어져 나가 소위 ‘수의(隨意) 과목’이 될 때도 마찬가지다. 설문지를 돌리기 전에 중언부언하며 당국의 뜻을 따르도록 유도하고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자 도 학무과의 의견을 구한다며 얼버무려 버린다. 뒤에서 조정하며 강자에게 한없이 약하고 약자에게 한없이 강한 일제의 지배 방식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식민 지배자로서 일본인이 가해하는 모습은 「그러한 남편」에도 잘 드러나 있다.

왜 그 먼저 왔던 미끼란 내무과장이 갈려가고 후지모리란 이가 대신 오잖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끌어온 사람으로 양주사란 이가 있지요? 양까불이라는 이 말예요.

그런데 그자 하곤 처음부터 뜻이 안 맞아서 울근불근하던 사인데, 그러고만 말면 좋았겠지만, 말인즉 그자가 내무과장을 어떻게 갈근적거리 가지고 그이가 보고 있던 면행정 사무를 착 빼서 가지더니 아주 바로 세 천진 듯 뽐내고서 네까짓 것들이 무슨 힘이 있니 하는 태도로 비단 그이뿐만 아니라 괜히 무고한 청원들을 꼬집기도 하고 알보기가 짝이 없었더라나요. 그러다가 무슨 말끝에 그이가 그만 그자의 뺨을 갈겼다는데 그러고 보니 웬걸 뜻밖에도 내무과장이 싸움을 가로말아 가지고 그이만 옥대길 뿐 아니라 나중에는 젠장 군수까지 나서서 야단이더라나요. 「그리한 남편」, 「낙동강 1」, p.193~194.

「그리한 남편」의 청년 강신규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고학을 해가며 일제시대 하급 관리인 군청주사에 이르렀다. 그는 직장에서 돌아오면 방에 틀어박혀 책을 읽는 게 취미인데 그 책이란 것이 모두 한문서적으로 한자와 시조를 외우고 공자왈 맹자왈을 들먹이는 것이다. 시대에 뒤떨어진 것일 수도 있지만, 아침할 줄 모르고 부박하게 굴지 않으며 부정에 물들지 않는 그의 생활태도는 정신적 바탕이 전통주의와 교양정신에 있음을 말해 준다. 빛을 지고 빛에 쪼들리며 살지만 돈에 대해서는 대범하다. 자기 일에 충실하면서 비리나 부당한 처사에 대하여는 맞붙어 싸우는 강직성과 과감성이 있다. 강신규와 대립되는 인물로 결국 그를 죽음까지 몰고 간 가해자는 후지모리 내무과장과 그가 부임하면서 데리고 온 양주사, 그들 뒤에서 힘을 실어주고 있는 군수가 있다.

강신규의 자살 동기는 우선 권력 밖으로 밀려남에 있고 두 번째는 돈(빛)에 쪼들림에 있다. 권력으로부터 소외되고 빛쟁이에게 모욕당하고 군수까지 자신의 무능을 알게 되었다. 그는 자책감과 자존심에 큰 손상을 입어 자기 모멸감을 억제할 수가 없게 되면서 결국 들통에 빠져 자살을 하고 만다. 이렇게 되면 그의 자살은 비굴하고 무가치한 사람들이 죽인 일종의 사회적 타살이 아닐 수 없다. 새로 부임해 온 후지모리 내무과장과 양주사, 그들을 뒤에서 조정하는 군수가 바로 살해자가 된다. 후지모리는 하수인이라 할 수 있는 양주사를 시켜 강신규의 업무를 하나씩 빼앗아 버린다. 전통적인 가치와 원칙에 충실한 강신규로 하여금 더 이상 살아갈 의욕을 잃게 만들어 식민 지배자로서 철저한 가해자가 되는 것이다.

요다 사부로, 수미 교장, 야마가와, 후지모리는 온갖 수단을 다 써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조선인 위에 군림하는 식민지배자 일본인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그러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황교감이나 양주사 같은 친일 조선인을 하수인으로 내세워 대리전을 시키고 있다. 뒤에 숨어서 조절하는 교활한 방법이다.

일본인의 이러한 태도는 광복 후 일본이 조선에서 물러간 뒤에도 변함이 없다. 교활하고 비열한 일본인에 대하여 우리는 생리적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사람의 감정이 대부분 그렇듯이 작가도 일본인과는 마주치는 것 자체가 싫은 것이다. 광복 이후에 나온 작품으로 「교수와 모래무지」에 일본인이 나온다.

그(중앙청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러 가는 이교수가 - 인용자)가 자리를 잡은 열차 안이 공교롭게도 또 일본인 여행객들이 많은 칸이었다. 그저 관광객인지 아니면 이 땅에 투자를 하기 위해 찾아든 사람들인지는 모르되 숫제 의기양양한 표정을 하고 앉아 있는 걸 보게 되자, 이교수의 마음은 더욱더 어두워지기만 했다. 일제 때 학병에 끌려가 고생하던 일이 생각나서만이 아니었다. 그들만 보면 이내 산업 공해의 으뜸이란 '6가 크롬'을 연상하게 마련인 이교수였다. 「교수와 모래무지」, 「낙동강 2」, p.441.

징계위원회에 가는 어두운 마음이라서 일본인을 대하는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만은 아니다. 학병에 끌려가 고생하던 생각과 더불어 현재의 공해 산업을 우리 나라에 이전시키는 장본인이기에 더욱 어두워지는 것이다. 일본에 대하여 작가는 과거에서 현재까지 좋게 볼 일이 없는 것이다.

그곳 땅을 십여 만 평이나 샀다는 ××합자회사는 사장이 일본 사람일 뿐 아니라, 이름만 합자회사지 알맹이는 온통 일본 사람의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뒤에도, 대부분의 사람들—특히 마을의 지도자로 자처하는 무슨 위원이니 회장이니 하는 사람들까지 입을 딱 봉하고 있는 데는 자기까지 굴욕을 느끼고 있는 송기호 씨였다. 「어떤 유서」, 「낙동강 2」, p.388.

종전이 되면서 일본인들은 물러났지만 어느새 다시 야금야금 이 땅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합자회사라는 허울좋은 이름을 내거는 것까지 하수인을 시켜 식민 지배를 강

화하던 때와 너무도 흡사하다. 제국주의 시대에는 총칼을 앞세워 들어왔지만 이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는 자본력을 앞세워 우리를 지배하려 든다. 총칼이 엔화로 바뀌어졌을 뿐 방법은 너무도 꼭 같다. 지배자의 위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우리에게 해를 끼친다. 식민 지배자와 피식민자 사이의 단순한 감정 문제만이 아니다. 작가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현실 경제의 측면에서 지배하려는 야욕을 고발하면서 청산하지 못하고 되풀이되는 역사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조선인-인용자) 순사는 곁에 있는 부장에게 일본말로 무어라고 지껄었다. 서류정리를 하고 있던 부장은 귀찮은 듯이 두어 마디 캐물었다. 「그물」, 「낙동강 1」, p.20.

김인철 교사는 황교감의 그와 같은 태도와 표정에서, 수미 씨보다 교육 경력으로 보나 실력으로 보아서는 훨씬 나은데도 조선인이기 때문에 도리어 '수미' 밑에서 비위나 맞추어야 하는 그의 심정을 읽으려 하였다. 「어둠 속에서」, 「낙동강 2」, p.341.

위의 인용에서 순사는 조선인이고 부장은 일본인임을 알 수 있다. 순사만이 아니라 교육자도 마찬가지다. 경력이나 실력으로 보아서는 훨씬 나은데도 황교감은 항상 교감이고 수미는 항상 교장이다. 조선인이기 때문에 낮은 자리에서 윗사람의 비위나 맞추어야 하는 신세이다. 이 두 인용은 평범한 진술로 보이지만 일본인이 항상 조선인보다 윗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조선인은 순사가 되더라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은 극소수이고, 말단 하위직에서 기다리다가 일본인 상관의 지시를 받고 지시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식민지 백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 교직에서도 책임자의 자리에는 올라가기가 힘들다.

식민 지배의 가해자는 가혹하다. 피식민자에게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자리를 아예 안들어 주지도 않으면서 자기들이 차지하고 앉아 명령만 내리고 있다.

2. 지주의 얼굴 없는 수탈

김정한 소설의 가해자 중에서 지주가 직접 얼굴을 내미는 것은 「그물」의 ‘박양산’과 「사하촌」의 ‘쇠다리 주사’ 정도이다. 「항진기」에 나오는 칠촌아저씨, 두삼이네와 읍내에 사는 어떤 부자는 지주이지만 지주다운 모습으로 직접 얼굴을 내밀지는 않는다. 그 외에 지주는 ‘중’과 ‘유력자’처럼 고유한 이름이 없이 추상적 인물로 등장한다.

쇠다리 주사는 마름을 거느리지 않는 ‘유산자’로 표현되어 있어서 뚜렷이 소작인에게 토지를 빌려준다고 하기는 어렵다. 동네 사람들과 같이 농사를 짓는다는 점에서 참된 의미의 지주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모습이다. 그저 논을 많이 소유하여 농사를 짓는 사람일 뿐이다.

지주는 위에 인용된 식민 지배자 일본인들처럼 항상 마름을 시켜 소작인에게 전달하고 어려움을 해결한다. 그러나 남이 괴로워하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주거나 구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마는 것은 지주도 일본인의 행태와 꼭 같다. 순적 백성에게는 일본인이 가해하는 것이나 지주가 가해하는 것이나 당한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로 된다. 아니 같은 민족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지주에게 당하는 것이 더욱 서러울지 모른다.

지주는 ‘소유 토지를 타인에게 빌려주고 그로부터 지대를 수득하는 사람’²²⁾이다. 그러나 김정한의 「그물」에 나오는 지주는 소작료만 받아 챙기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는 소작료를 받을 때 쌀을 되는 되까지 속이면서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소작인을 괴롭히는 타도의 대상이다.

되질은 김주사 아들과 며슴이 하고, 그 감독은 물론 김주사다. 되질을 어떻게 하는지 열 말에 적어도 한 말 이상이 축난다. 그 때문에 소작인들은 예비로 보통 몇 말 더 가지고 간다. 「그물」, 「낙동강 1」, p.14.

(박양산이 송또쫄의 앞에서-인용자) “좋은 나락은 골라서 네가 처먹고 나에겐 제일 나쁜 것만 돌려서 갖다 준대지? 이 망칙한 아이 도적놈 같으니! 명년부터는 내 논 부치지 마라! 일 없다. 이젠.” 「그물」, 「낙동강 1」, p.15.

위 첫 번째 인용에서 보듯이 마름은 지주의 목인 아래 되질까지 속여가며 소작인을 괴

22) 이희승(1982),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p.3478.

롭힌다. 마름인 김주사의 아들과 머슴이 되질을 어떻게 하는지 소작인들은 열 말에 한 말은 축 나는 소작료를 내야 한다. 미리 되어서 꼭 맞게 가져온 소작료지만 현장에서는 항상 모자라고, 만약 모자랄 때는 큰일이 난다. 되쟁이가 화를 내고 사슴(마름)인 김주사에게 타박을 받고 나서 마지막에 지주인 박양산 앞에 꿇어앉아서 꾸지람을 듣게 된다. 그러고도 모자라서 두 번째 인용에서 보듯이 지주인 박양산은 마음에 들지 않는 소작인에게 트집을 잡아 아예 소작권을 박탈하고 만다. 소작인들에게는 ‘무서운 악마의 손같이 야윈 목줄기를 졸라 쥐고 있’는 것이 바로 지주다. 보이든 보이지 않든 땅을 파서 먹고 사는 농민들에게 지주는 생사여탈권을 쥐고 마음대로 혼드는 악마로 비친다. 결국 지주는 돈만 추구하는 철저한 가해자의 모습이다.

의젓하게 교의에 기댄 채 인사도 받는 양 마는 양하는 (보광리 농사조합)이사(理事)님은 빌 듯이 늘어놓는 구장의 말일랑 귀 밖으로, 한참 ‘씨끼시마’껍데기에 낙서만 하고 있더니, 문득 정색을 하고는,

“그런 귀찮은 눈은 부치지 않는 게 어때요?”
해 던졌다.
“.....”

“해마다 이게 무슨 짓들이오? 나두 인제 그런 우는 소리는 듣기만이라도 귀찮소. 호세만 내고 버티겠거든 어디 한번 버티어들 보시구려!”

“누가 어디 조합돈을 안 내겠다는 겁니까? 조금만 연기를 해달라는 거지요.”

이번에는 또쥬이가 말을 받았다.

“내든 안 내든 당신들 입맛대로 해보시오. 난 더 이상 당신들과는 이야기 않겠소.”

이사님은 살결 좋은 얼굴에 적이 노기를 띠더니, 그들 틈에 끼여 있는 곰보를 힐끗 보고는,

“고서방, 당신은 또 뭘 하러 왔소? 작년 것도 못다 내고서 또 무슨 낯으로 여기 오우?”

매섭게 꼬집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장부를 뒤적거리면서, 하던 일을 계속했다. 일행은 허탕을 치고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며칠 뒤, 저수지 밑 고서방의 눈을 비롯하여 여기저기에, 그예 입도차압(立稻差押)의 팻말이 붙기 시작했다.

농민은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 차압 팻말을 몇 번이나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았다. —피땀을 흘려 가면서 지은 곡식에 손도 못 대다니? 그들은 억울하고 분하기보다

이젠 꼼짝없이 목숨을 빼앗긴다는 생각이 앞섰다. 「사하촌」, 「낙동강 1」, p.63~64.

지주에게는 소작인들의 원성이 들리지 않는다. 가뭄으로 소출이 적어 소작료는커녕 저녁끼니가 걱정인 소작인들에게 어떻게 더 받아먹을 것인가만 궁리한다. 지주는 소작인들의 목숨은 관심조차 없다. 트집을 잡아 말이 안 통하면 자기네 지주들과 한 통속인 순사나 법에 호소하거나 조합의 위력으로 위협을 가하는 등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이익만 챙기면 된다. 그들에게는 오직 소작료, 빚과 이자, 조합비, 권력만 있을 뿐이다. 그러다가 필경은 「사하촌」의 마지막 장면에서처럼 저항에 부딪치리라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는다.

김정환은 「사하촌」에서 농민의 가난은 가뭄이라는 자연적인 재해 때문만이 아니라 사회적 모순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적 모순의 실체는 바로 보광사의 중들로 대표되는 지주와 그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일본 제국주의이다.

“뒗강물이 벌이 차게 넘고, 날마다 집채가 떠내리고, 소가 떠내리고, 뺨이 칭칭 감겨 붙은 시체가 떠내리고…… 정말 목불인견이었지. 우린 그때 아직 철이 없었지만 어린 생각에도 참 하늘이 원망스럽더군.”

박첨지는 부엌 앞에서 빗발을 피하고 서서 옛일을 회상하고는 다시금 말을 이었다. “그런 난리판에도 부자들만은 흉년 덕을 톡톡히 보았거든.”

“흉년덕이라뇨?”

“땅값이 워낙 싸졌으니 그렇지. 당장 굶어 죽어 판에 논밭이 쓸 데 있는가! 그저 지낼 만한 데에 가서 흰죽 한두 그릇 얻어먹고는 두서너 마지기씩 척척 바쳤거든. 실은 네 칠촌대 재산도 거의 그때 걸태질해 들인 것이지만 말야. 우리도 논마지기 좋아 갖다 바쳤지…….” 「항진기」, 「낙동강 1」, p.104.

「항진기」의 칠촌아저씨는 굶어 죽지 않기 위해 ‘흰죽 한두 그릇씩 얻어먹고는 두서너 마지기씩 척척 바쳤던’ 홍수로 흉년이 들었을 때 재산을 모은 사람이다. 그런 때는 동네 사람이고 친족이고 없다.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 되는 것이 지주의 속성이다. 홍수가 나서 다 쓸려가고 굶어죽는 판에 같은 마을에 사는 가까운 이웃과 친족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곤란에 처한 친족의 논이라도 좀더 확보하려는 것이 지주다.

문제의 등 너머 논이란 건, 읍내에 사는 어떤 부자의 토지로, 박첨지가 벌써 십여 년이나 까딱없이 지어오던 터인데, 뜻밖에 대밭골 손가란 사슴녀석이 나서서 전부터 지주와 무슨 약속이 되어 있었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금년부터는 자기가 짓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박첨지는 부랴부랴 지주를 찾아갔으나 잘 만나 주지도 않고 사람을 시켜 하는 말이 그저 사슴과 잘 의논하라는 투로 책임을 회피할 따름이었고, 소위 그런 일을 중재해 준다는 군청이란 델 찾아가 보아도 역시 그건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라는 식으로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논은 지주와 주재소를 엮고 사는 손가 녀석에게 곱다시 뺏기게 될 판이었다. 「향진기」, 「낙동강 1」, p.125.

그러고도 모자라 논에 문제가 생기면 소작인쯤은 만나주지도 않는다. 박첨지가 십여 년 동안 지어오던 논을 어느 날 갑자기 손가란 마름이 와서 내놓아라 한다. 지주와 약속이 되어 있다는 단 한 마디의 통보뿐이다. 군청과 주재소도 역시 마름과 마찬가지로 지주에게 떠넘기지만 지주는 아예 만나주지도 않는다. 농민에게는 목숨과도 같은 논을 지주는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도 쉽게 생각하여 소작권 박탈을 마음대로 한다. 당시의 통계에 의하면 소작기간 1년이 70%, 2~3년이 12.8%, 4~5년이 10.6%로 나타나 있다.²³⁾ 이는 소작농의 불안정과 지주의 냉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소작 농업인들의 절망적 참상을 알 수 있게 한다. 지주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입장을 전혀 돌보지 않는 가혹한 가해자의 전형이다. 얼굴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지주는 가해자로서 주재소, 군청, 나아가 일제와 한통속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탐욕은 결국 경제적인 측면에서 일제가 수탈정책을 실현하는데 앞잡이 역할밖에 수행하지 못한다. 1917년부터 21년 사이 5년간의 평균 쌀 생산량이 1,410만 석일 때 대일 수출은 219만 석인데, 1932년부터 36년 사이 5년간의 평균 쌀 생산량이 1,700만 석으로 증가하자 대일 수출은 875만 석으로 4배 정도 증가하였고, 1930년대 후반기에는 1,000만 석 이상을 수탈해 갔다.²⁴⁾

결국 일제는 식민 지배하에서 국책회사로 동양척식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한국 농촌을 일본의 식량기지로 삼았고 그 곁에 지주를 내세워 이용했다고 할 수 있다.

23) 조동걸(1979), 「일제하 한국농민운동사」, 한길사, p.103.

24) 조동걸(1979), 상계서, p.106.

3. 중의 재물 취득

김정한 소설에서 중이 직접 등장하는 소설은 「사하촌」과 「옥심이」, 「추산당과 결사 사람들」이다. 여기에 나오는 중들은 지주보다 한술 더 떠서 농민을 괴롭히고 있다. 그들은 그냥 수도에 정진하는 스님이 아니라 바로 토지를 소유한 절의 중이다. 특히 위 세 편의 작품에서 문제되고 있는 ‘중’은 바로 눈 앞에서 조선 농민을 괴롭히고 있는 일제의 상징적 상관물이라는 데 별다른 의미를 지닌다.²⁵⁾

일제는 1911년 6월 ‘사찰령’을 발표하여 조선인 불교계를 통제하고 또 친일화해 갔다. 사찰령이 시행되면서 사찰의 명칭, 승규(僧規), 법식(法式) 등을 조선 총독의 허가제로 하고 사찰에 속하는 토지 등 모든 재산의 처분을 역시 총독의 허가를 받게 했다. 이후 사찰의 주지 임명권도 조선 총독에게 넘어갔다. 조선 총독은 본산의 주지들을 직접 지배하면서 그들에게 사재(寺財)의 관리권과 처분권, 그리고 인사권 등 강력한 권한을 위임했다. 또한 그 재산을 보호해 줌으로써 사찰들이 대지주의 위치를 차지하게 했던 것이다.²⁶⁾ 3·1운동 후, 일제는 불교가 민간에서 대단한 신앙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부흥시켜 국민신앙이 귀착하는 곳을 만들게 해서 민족 운동의 거세에 이용한다는 점에서 당국의 주목을 받고 있었음을 상기해 볼 때,²⁷⁾ 1930년대 후반에 이르러 가속화된 일제의 황국신민화 내지 내선일체 운동에 있어서 하나의 거점 역할을 한 곳으로 불교 사찰을 들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이러한 일제의 종교 분열 정책과 이로 인한 불교의 어용화란 그 궁극적 목적이 종교단체의 약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 단체 속의 민족주의자를 몰아내려던 데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일제에 의한 종교의 어용화가 문화적 역량의 분쇄와 친일화에만 기여한 것이 아니라 결국 경제적인 측면에서 일제의 수탈 정책 실현에 있어서도 앞잡이 역할을 수행했다는

25) 오양호(1978), “현실과 산문정신” 「요산 문학과 인간」, 요산 김정한선생 고회기념사업회, p.83.

26) 강만길(1984), 「한국현대사」, 창작과 비평사, p.143.

27) 강동진(1980), 「일제의 한국침략정책사」, 한길사, p.388.

점을 김정한 소설은 보여주고 있다. 그들 중들은 철저한 가해자가 되어 일반 지주보다 더 악랄하게 순적 백성을 수탈해 갔다. 소작료 문제만이 아니다. 극락왕생을 미끼로 남의 눈을 거저 차지하고도 모자라서 가뭄에 물까지 아예 독점하려 든다.

치삼노인은 ‘중놈’이란 말에 가슴이 선뜩하였다—그것은 자기들이 부치고 있는 절 논 중에서 제일 물길 좋은 두 마지기가, 자기가 젊었을 때, 자손 대대로 복 많이 받고 또 극락 가리라는 중의 땀에 속아서 그만 불전에, 아니 보광사(普光寺)에 시주한 것이기 때문이다. 멀쩡한 자기 눈에 괜히 중에게 주어 놓고空空 소작을 하게 되고 보니, 심접기도 짝이 없거니와 딱한 살림에 아들 보기에 여간 미안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사하촌」, 「낙동강 1」, p.28.

종교적 신념이 넘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손 대대로 복 받고 극락 가리라’는 말에 제일 좋은 논 두 마지기를 선뜻 시주하기는 망설이게 마련이다. 그것 때문에 살림이 어려워진다면 더욱 그렇다. 시주의 대가로 자손 대대로의 복은커녕 가뭄이 드니까 당장 끼니가 어려워졌다. 보광사의 중들은 이런 치삼노인과 그의 아들, 그의 동료들에게 고마움의 표시를 하는 대신 물까지 차단하며 철저한 탐욕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어떻게라니요. 이젠 다 틀렸어요. 풀래야 풀 물도 없고, 병아리 오줌만한 붓물도 중들이 죄다 가로막아 놓고, 제-기…….” 「사하촌」, 「낙동강 1」, p.27.

들깨는 커다란 샤벨로 노승의 장난감 같은 삼가래를 뗏장과 함께 찍어 당겼다. 물은 다시 빼—하고 밀으로 흘러내렸다.

“이 사람이 버릇없이 왜 이럴까?”

노승은 짐짓 점잖은 체하 나무라면서도, 눈에는 시뻐하는 빛과 독기가 일쑤거렸다.

「사하촌」, 「낙동강 1」, p.30.

가뭄이 들어 모내기가 어려운 판에 T시 수도 출장소에서 저수지의 물을 공급했다. 폭동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이 물은 모든 논에 골고루 나누어져야 마땅하다. 그러나 상층의 좋은 논들을 가지고 있는 중들이 위에서 모두 차단해 버린다. 하층의 논에는 시의 저수지에서 공급하는 물마저 혜택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결국 물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럴 때 마침 뽕- 하고, 자동차 한 대가 그들이 쉬는 데까지 먼지를 뒤집어씌우고 달아나더니 보광리의 앞에서 덜컥 머물렀다. 거기서 내린 것은—해수욕을 갔다 오는 보광리 젊은 사람들이었다. 일본으로, 서울로, 유학을 간 팔자 좋은 젊은이들이었다. 물론 계집애들도 섞여 있었다. 성동리 농부들은 한참 동안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들 가운데 섞여 있던 고자쟁이 이시봉이 웬일인지 차에서 내리자 곧장 주재소로 들어갔다. 「사하촌」, 「낙동강 1」, p.38~39.

보광리 사람들은 가뭄에 물까지 빼앗는 것으로도 부족하여 애가 타도록 논으로 물을 퍼내는 사람들을 향하여 먼지를 뒤집어 씌우며 자동차를 타고 해수욕장을 다녀온다. 사하촌인 성동리 사람과 대치승인 중과 직접 연관되어 있는 가족이 사는 보광리 사람은 삶의 질이 지옥과 극락만큼이나 다르다. 소작료를 책정하고 조합비를 받으며 간평을 하여 가난한 성동리 농민들의 돈을 거두어 가는 것은 일본으로 서울로 유학을 하는 팔자 좋은 보광리 젊은이들이다. 그들은 바로 지주인 중의 힘을 등에 업은 지식인이다. 그러나 그 지식인은 브나로드느커녕 남들이 가뭄에 목이 말라 땀흘려 일할 때 자동차를 타고 해수욕장으로 유람을 즐기고 있다. 경제적으로 생산자가 못됨에도 불구하고 소작료를 받아 유학을 하면서 경제적 가해만이 아니라 정신적 문화적 가해를 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잇속을 차리기는 지주보다 나으면 나왔지 결코 못 하지는 않은 것이 중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다.

중의 경제력을 빌려 유학을 가는 경우는 보광리 젊은이만이 아니다. 「추산당과 결사람들」의 강명호도 마찬가지이다. 강침지 부자는 결사람들과는 달리 유교적 가치를 실현하는 인물로 현실에 대하여 비판적이고 저항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아들 강명호는 비판적이고 저항적이지만 구체적 행동은 못하고 있다. 강침지는 아들 명호가 추산당의 경제적 지원으로 ‘유학인가 뭔가를 시작하고부터는 아주 영 탄판이 되었고’ ‘죽도 밥도 되지 않고 공연히 속에 화만 남아서 되려 집안 사람들에게 신세만 끼치게 되고 말았다.’고 원망한다. ‘부처 팔아먹은 중’으로서의 추산당은 일제시대 속화된 불교적 상황을 대변하는 인물이다. 그는 가난한 집에서 농사를 짓기 싫어 지계를 벗어 던지고 절로 달아나

부처의 불자도 모르면서 동냥질을 나셨다. 그는 논도 사고 돈도 모았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인제는 중도 제 맘대로 취처를 해 가지고 여염살림을 할 뿐더러, 어중이 떠중이 모두 돈 돈’하고 날뛰는 세상이 되었으니 그저 돈을 모으는 데만 급급했다. 여기에 추산당과 명호의 아버지 강침지의 거리가 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모으는 사람과 유교적 전통의 가치를 지켜 나가는 사람의 차이다. 중도에 중단하기는 했지만 부정한 돈으로 유학하는 강명호같은 사람이 돌아오면 그 돈의 노예가 되고 유학자금을 대준 사람의 하수인이 되리라는 것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중들의 권한은 중 혼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옥심이」에서는 일제에 의해 이루어진 대처승 정책으로 중의 마누라까지 중 이상의 호강을 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그래도 요즘 중 마누라만큼 편한 팔자가 또 있다구요? 아주 부처님보다 더 높게 떠받들어 주는 걸 뭐.”

“그야 그렇지요. 그러니 년들이 아주 기가 펄펄허잖수.”

“그런 말이 아니라. 세상이 아주 뒤집혀졌지. 내가 이 수복 어머니만 한 나일 때만 해도 중들이 그저 속인만 보면 허리가 동강이 나도록 굽신거렸고, 또 그때야 웬걸 중에게 논밭이란 것이 있었다구?” 「옥심이」, 「낙동강 1」, p.72.

“수절이니 의리니, 그것 다 소용없소. 쉬운 말로 누가 열여덟부터 오늘날까지 과부로 늙은 날 위해 열너비 세워줍디까? 그까짓것 또 세워 준들 뭘 하우. 비석에서 밥 아니 나올 바에야. 어쨌든 세상 따라 사는 게 제일이오. 백암사 주지 보시오. 계집이 몇이나 돼도 산중에 선 그래도 산 부처님이니 뭐니 해서 떠받들고 주지 노릇만 땅땅 잘해 먹지 않수.” 「옥심이」, 「낙동강 1」, p.69.

「옥심이」는 ‘백암사’의 절논을 부처는 조각인의 궁핍과 윤리적 파탄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시선을 달리하여 가해자의 입장에서 보자. 옥심이가 궁핍하고 타락하는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만식이 위에 있는 중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중들이 속인을 보며 굽신거리던 시대’는 갔다. 이제는 논밭이란 경제력을 가진 중이 나오니 ‘속인이 되레 중을 보고 코가 땅에 닿도록 대강이를 숙여야’ 보리밥 한 덩이라도 얻어먹는 시대가 되었다. ‘처자 사타구니에 불알 나게 변’한 것이다. 이런 변화는 경제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문화적, 정신

적 가치에도 변화를 가져온다. 전통적 가치인 수절이니 의리니 하는 대신에 중에게 붙더라도 자기 한 몸 편한 것을 추구하게 되었다. 궁핍한 옥심이의 타락은 만식이의 유혹이 직접적 원인이지만 그 이전에 중들에 의해서 기존의 전통적 가치가 이미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중은 경제적 수탈자만일 뿐더러 정신적 가치를 파괴하는 가해자이기도 한 것이다.

“아니 참 그럴 말이 아니라, 오늘 백암사 농사조합에도 가 봤는데 나한테 비료 대부 못 하겠다구요. 왜 그럴까요—?”

시어머니는 어지간히 놀란다.

“모르지. 중의 속을 누가 안담?”

“논 때어 갈 심보가 아니겠소?”

“그렇는지도 모르지.”

시아버지는 남의 일같이 신풍스럽게 말했다.

“아이구, 그럴게유, 그래요. 또 바위네도 논 때일 때 그리드라우. 인제 큰일 났소, 큰일 나!” 「옥심이」, 「낙동강 1」, p.77.

설상가상으로 옥심이가 떠나고 닳새도 못 지나서, 근 삼 년이나 부쳐오던 절논 — 그 논 까닭으로 신작로 부역까지 나간 백암사 논이지만 — 너 마지기까지 텅 없이 중에게 떼였으니, 뭐 도무지 말이 못되게 웅색해졌다. 「옥심이」, 「낙동강 1」, p.92.

아무도 모르는 중의 속이지만 결과는 누구나 쉽게 예측이 가능하다. 트집을 잡아서 소작인들이 부치는 논을 떼려는 술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일은 옥심이네에게서만 일어나는 것만은 아니다. 이미 바우네 논도 그렇게 떼었던 전력이 있다. 논을 잃어버린 농민들이 갈 곳은 아무데도 없다. 집을 버리고 고향을 떠나 유랑민이 되거나 아예 고국을 떠나 북간도로 이리저리 돌아다닐 수밖에 없다. 「사하촌」에서 ‘입도차압(立稻差押)의 팻말 아래 야간도주’를 하는 고서방이나 ‘부쳐오던 절논을 무고히 떼이고 살길이 막혀서 동네 뒤 소나무 가지에 목을 매’는 허서방의 모습이 옥심이네의 다음 단계의 삶이다. 이들을 유랑이나 자살로 몰아가는 자들이 바로 중이다. 고서방 허서방 옥심이의 지난한 삶에 대한 논의는 지금까지 많이 이루어져 왔고 작품으로도 많이 그려졌다. 현진건의 「고향」,

박화성의 「고향 없는 사람들」, 김동인의 「붉은 산」, 최서해의 「탈출기」 등은 바로 유랑농민을 문제삼은 작품이다. 전통적 가치를 지키며 땅만 파먹고 살아온 농민들에게 이러한 인간 이하의 삶을 살게 하는 자들인 지주, 중 들에 대해서도 시선을 돌려 깊이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가 있으면 반드시 가해자가 있게 마련이고 그들 가해자에 대하여는 비교적 관대한 것이 우리 나라 역사의 흐름이다. 순적 백성을 죽음까지 몰아가는 가해자들의 행위를 드러내어 알리고 비판하여 역사의 흐름을 바로잡아야 한다.

4. 마름의 침병 역할

김정한이 첫작품 「그물」에서 다루고 있는 중요한 내용은 농사꾼 또췌이와 마름 김주사와의 갈등이다. 이어 4년 뒤에 발표한 대표작 「사하촌」에서도 같은 이름의 또췌이가 등장하고 아울러 다양한 마름의 모습과 행태가 나타나면서 「그물」에서 다루어진 내용이 더욱 심화 발전되고 있다. 처녀작의 의미는 어느 작가에게나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 후에 쓰여질 여러 작품들의 어떤 방향을 제시해주고 주인공의 성격에 한 패턴을 시사해준다. 김정한의 경우 처녀작인 「그물」은 그의 문학의 기본적 특성인 저항적 측면의 요소가 엿보이면서 발전적 계기로 자리한다고 볼 수 있다²⁸⁾. 작가는 처녀작 「그물」의 발전적 측면을 「사하촌」에서 실현하고 있으며, 특히 「사하촌」은 이후 김정한 소설 세계의 근간을 형성하며 중심 과제를 함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처녀작에서 출발하여 본격적 작가의 길로 나가게 만든 작품에서 다루고 있는 세계가 소작인과 마름의 갈등으로 형상화되고 있다는 것은 그의 전체의 작품 세계를 가늠하는 초석이 된다.

그(또췌이 - 인용자)가 막 언덕 위에 올라서자, 거기 느티나무 그늘에 뜻밖에 김주사가 부채질을 하고 앉아 있었다. 김주사 - 그는 지주 박양산의 사음(마름)이다. 「그물」, 「낙동강 1」, p.11~12.

28) 조갑상(1991), 「김정한 소설연구」, 박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대학원, p.24.

한여름 땀별에서 죽을 등 살 등 김을 매고 논일을 하여도 돌아오는 것은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소출인데, 바로 그 시간에 마름은 나무 그늘에 앉아 한가하게 부채질을 하며 농촌 풍광을 즐기고 있다. 이런 장면은 「사하촌」에서 쇠다리 주사에 의해서도 반복되고 있다. 가진 자들의 행위는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소작인들에게 온갖 모함을 씌워 땅을 빼앗아 농사를 못 짓게 하거나 소작료를 올릴 궁리만 하고 있다.

「그물」은 당시에 일반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마름들의 악랄한 소작인 착취를 다루고 있는 비교적 단순한 구조의 소설이다. 박양산의 마름인 김주사는 돈 5원을 빌려주지 않았다고 온갖 핑계를 대면서 소작인 또췌이를 괴롭히다 못하여 논을 빼앗을 계약을 꾸민다. 송또췌은 돈 5원을 빌려달라는 김주사에게 어떤 흥계가 있다는 것을 막연히 짐작하다 소작료 납입시 지주 박양산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안골 논을 빼이고 만다. 그리고 김주사로부터 호출을 받고 돈 50원을 내면 춘삼이의 논을 부치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서야 확연하게 김주사의 간계를 알아 차린다. 그러므로 작품의 제목인 「그물」은 마름인 김주사가 소작인들에게 쳐놓은 사람잡는 ‘그물’이다²⁹⁾.

이런 김주사와 꼭 같은 인물이 「사하촌」, 「항진기」에도 나온다. 마름의 식민지적 이름인 농사조합 평의원인 ‘진수’, 주재소의 고자쟁이 ‘이시봉’, ‘산지기’, 「항진기」에 나오는 ‘손마름’ 등이다. 이들은 모두 전형적인 가해자의 모습이다.

보광사에서 갑자기 간평(看坪)을 나왔다. 고자쟁이 이시봉과 본사 법무원(法務院)에서 셋—도합 네 사람이 나왔다.

간평! 소작료! 농민들에게는 이 말이 무엇보다도 무섭고 또 분했다. 그러나 그날 절논 소작인으로서의 물론 하나도 출타를 앓고 기다렸다. 농사조합의 평의원이 되어 있는 진수도 그날은 면소 일을 제쳐놓고 중들을 맞이하였다.

그래서, 진수의 집 사랑에서는 일찍부터 술상이 벌어졌다. 미리 마련해 두었던 밀주와 술안주가 이내 모자랐던지, 머슴놈이 보광리 상점으로 종종 걸음을 치고, 쇠고기 굽는 냄새가 흐뭇이 새어나오는 통에 대문 밖에 죄인처럼 쭈그르르리고 앉은 소작인들은 괜히 헛침만 꿀떡꿀떡 삼켰다. 「사하촌」, 「낙동강 1」, p.55.

간평이란 ‘지주가 도조(賭租)를 매기기 위하여 추수하기 전에 실지로 가서 농작물의 품

29) 조갑상(1991), 상계서, p.19.

흥(豊凶)을 살펴보는 일³⁰⁾이다. 당연히 논에 가서 작황을 살펴보고 도조를 매기기 위한 사전 작업을 해야 한다. 소작인들을 모두 기다리게 하며 간평 나온 사람들이 하는 일은 아침부터 쇠고기 굽는 냄새를 풍기며 술타령이다. 가뭄에 타들어가는 논은 이미 그들의 안중에는 없다. 사정하러 오는 치삼노인에게는 ‘술맛 떨어진다’며 화를 낸다. 작년에는 논에는 아예 나가지도 않고 앉아서만 소작료를 정하여 세만 잔뜩 매긴 적이 있다. 결국 올해만의 일이 아니라 해마다 반복되는 엉터리의 악순환이다. 그러면 그것은 이미 간평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일방적인 통보이고 횡포일 뿐이다. 자기들끼리 주절거리며 트집만 잡으려 할 뿐이다.

술취한 양반들에게는 옳은 간평이 될 리가 없었다. — 그저 작인들의 말은 마이동풍격으로, 논두렁에도 가깝게 들어서 보는 법도 없이 다만 진수하고만 알아듣지도 못할 예말을 주절거리면서, 그야말로 치삼촌 산소 벌초하듯이 호지부지 지나갈 뿐이었다. 「사하촌」, 「낙동강 1」, p.57.

논밭의 관리자가 마름이라면 산림의 관리자는 산지이다. 가뭄을 못 이긴 성동리 사람들은 ‘싱거운 추석이 지난 뒤 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남자는 지계를 지고, 여자들은 바구니를 들고서.’

‘한 광주리 가득 채워 이고 이십 리나 넘어 걸어야 겨우 이십 전 받을 등 말 등한 소케버섯 싸리버섯 등숙을 따기 위해서다. 보광사 대사봉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에는 산지기가 지키고 있다. 잡히면 버섯을 빼앗기고 혼이 난다. ‘그루터기에 걸려 넘어지고 숲가지에 치마폭을 찢기’면서도 달아나야 한다. 아이들도 지계를 진 채 자빠지고 엎어지고 달아나다 가 결국은 그해 가을에 월사금을 못 내어 퇴학당한 상한이가 의상대사의 공부터라는 바위 밑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고 만다.

“당신은 자식이 없소?”

칼로 찌르듯 뻘물었다.

“있든 없든 무슨 상관이야. 호—참! 없다면 하나 낳아 줄 건가?”

30) 이희승(1982),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p.58.

산지기는 뻔뻔스럽게, 털에 쌓인 입만 비죽할 뿐이었다.

“뭐라구요? 예끼 여보, 절에 있다고 너무 하오. 아무리 산이 중하기로서니 남의 자식 목숨을 그렇게 안단 말유?”

화젓맥은 그 자의 거만스러운 상판대기에 똥이라도 집어 썩우고 싶었다.

“야, 이 여편네 좀 봐! 아아주 누굴 막 살인죄로 물려구 드는군. 건방진 년 같으니, 천지를 모르고서 켜—히. 왜 이따위 새끼도둑놈들을 빠뜨렸느냐 말야? 이년이 저부터 요런 도적질을 함부로 하면서 뻔뻔스럽게—”

산지기는 화젓맥의 버섯바구니를 힘대로 걷어찼다. 그리고는 어디론지 핏 가버렸다. 「사하촌」, 「낙동강 1」, p.52.

사람을 죽여 놓고도 큰 소리다. 쫓기던 아이가 더 도망갈 데가 없어 눈 앞에서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었는데도 미안해하거나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부녀자를 회롱하려 든다. 죽은 상한이의 할머니인 가동 할머니는 결국 실성하여 미쳐버리고 만다. 보광사 파출소에서 순사가 와도 산지기는 아무 탈이 없다. 살인이라는 가해를 하고도 뒤에 보광사라는 절이 있기에 무사히 넘어간다. 법 위에 절이 있고 그런 절을 업고 있는 마름이나 산지기는 순적 백성에 대하여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거침없이 가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 마름은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또쫓이나 들깨 같이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동물로 불려진다. 이시봉은 ‘쟁이’이고 이주사는 ‘쇠다리’이다.

경찰과 주재소의 고자쟁이로 알려져 있는 이시봉이란 젊은 놈의 쟁이, 「사하촌」, 「낙동강 1」, p.31.

쇠다리 주사가 뒤에서 논두렁을 타고 왔다. 한 손에는 양산, 한 손으론 부채를 흔들면서, 쇠다리 주사가 뭐냐고? 그렇다. 옮겨 부르면 이주사다. 그러나 속에 똥만 든 그가 돈냥 있던 덕분으로 이조 말년에 그 고을 원님에게 쇠다리 하나 올리고서 얻은 ‘주사’란 것이 오늘날 와서는 세상이 달라진 만큼 그만 탄로가 나고 말았기 때문에, 모두들 그를 그렇게 불렀다. 물론 안 듣는 데서이지만. 「사하촌」, 「낙동강 1」, p.37.

농사일에서 마름의 역할은 공사판에서는 십장이 될 것이다. 십장도 마름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아닌 짐승 ‘똥개’로 불려진다. 아니면 인간 이하의 발록구니일 따름이다.

‘도로꼬’가 향해 가는 두미산 중턱 — 띠를 두른 듯이 황토가 벌겍게 드러난 곳이 백암사로 통하는 신작로 공사장이었다. 거기서도 흰 옷 입은 농민들이 카키 빛 양복의 감독과 심장들의 매에 쫓겨 물 만난 개미떼처럼 이리저리 허덕였다.

“언제나 끝이 날 겐지?”

“누가 안담? 똥개한테나 물어보우.” 「옥심이」, 「낙동강 1」, p.67.

그만 어제 그 안심장이란 사람의 말을 들을까? 옥심이는 마침내 이런 생각에 사로잡혔다. 안심장이란 사람은 친정곳 사람으로서 일찍이 사방공사 품팔이를 다니더니, 그만 그 길로 나가서 한산 인부가 되어 고향을 등진 발록구니(=하는 일 없이 놀며 돌아 다니는 사람-인용자)다. 「옥심이」, 「낙동강 1」, p.70.

“김만식!” 하면서도 안주인이 얼른 알아채질 못하기에, 두보는 다시

“청주서 온 김감독 말이요.”

“네—, 가네꼬상 말씀이군요. 아까도 우리집에서 놀다 가셨는데…… 저 바로 이 동네에 계세요.”

가네꼬상이란 말에, 끼룩끼룩 밍살스럽게 내다보던 대가리들이 어느 새 죄다 들어가 버렸다. 「기로」, 「낙동강 1」, p.140.

일제 식민지 지배의 침병 노릇을 했던 마름이나 심장은 마지막에는 팽이나 쇠다리, 똥개로도 모자라서 「기로」의 김만식에서 보듯이 다른 사람에게 미움받는 것은 아랑곳없이 창씨개명을 하여 가진 자인 일본의 앞잡이가 된다. 김만식이라는 조선인 이름은 없어지고 ‘가네꼬상’이라는 일본식 이름으로만 존재한다. 식민 지배 아래에서 민족의 양심과 관계없이 지배자에 동화되어 순적 백성들을 수탈하기에는 좋은 기회가 온 것이다.

두보와 만식이 — 듣건데 그들은 말눌음질을 배울 때부터 동무라 한다. 하기는 같이 소학을 마친 뒤 만식은 곧 서울로 유학을 떠났고 두보는 일본으로 고향을 하러 간다고 한동안 서로 갈려 있었기 때문에, 아니 그보다 좀더 똑똑히 말하자면 하나는 있는 집 자제요, 하나는 없는 집 자제였기 때문에, 「기로」, 「낙동강 1」, p.157~158.

(김만식이 두보에게-인용자)“자네 곤잘 ‘니체’니 뭐니 하지만 거 다 실상은 현실을 모르고서 그저 책상 위에서만 따져 낸 위대한 잠꼬덜세. 자네도 그 따위 ‘니체’니 인간성이니 하는 것을 어서 버리고서 절박한 목전의 현실부터 먼저 이해해야 될 걸세. 그럴 용기는 없는가…… ‘플루타르크’의 영웅전이라도 한번 읽어 보지 그래?”
 “영웅전을—?” 「기로」, 「낙동강 1」, p.158.

민족을 팔아먹고 가진 자에게 아부하며 살아가지만 그들이 말짱 무식하지는 않다. 「사하촌」의 진수는 면서기이기도 하다. 위의 「기로」에서 보듯이 만식이는 서울 유학을 하였고 ‘니체’와 ‘플루타르크 영웅전’을 논하고 있다. 행동보다 생각이 앞서서 두보를 니체에 연결시키면서 플루타르크에 나오는 영웅들처럼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모두 기본 독서량을 갖춘 지식인다운 사고방식이고 말솜씨라 할 만하다. 그러나 김만식, 즉 가네꼬 상의 행동은 본인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는 대신에 같은 민족을 파멸의 길로 몰아 넣어서 그들의 피를 빨아먹는 행위이다. 그는 혼탁한 사회에서 플루타르크를 논하면서도 국가나 민족이라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하여 투쟁한 영웅의 행동을 닮지 못하고 ‘지금 우리의 경우로선 그걸로서 족하다’고 자신의 보신만을 피하는 속물이다.

결국 「그물」의 김주사, 「사하촌」의 진수, 산지기, 「항진기」의 손마름과 「옥심이」의 안 십장, 「기로」의 김민식은 모두 한통속이다. 식민 지배자인 일본인이나 지주보다 한 발 앞서서 그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어려움을 해결하며 재산까지 불려준다. 이들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사람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철저한 가해자이며 속물적 지식인의 전형이다

5. 순사의 초법적 횡포

김정한의 소설에서 광복 이전에 나온 농촌을 그린 작품에서는 구체적 이름을 가진 순사의 등장이 많지 않다. 소설 속에서 순사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그려져 있지 않다. 순사는 그저 막연한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정도이다. “순사 온데잇!”하면 울던 울음도 그쳐야만 했던³¹⁾ 지레 겁을 먹던 시대임을 작가 자신의 어릴 때의 기억에서 찾고

있다.

나중에는 뻘어져 누운 놈을 끌고 주재소에까지 가자고 야단이였다. 곰보는 그 말이 무엇보다도 무서워서, 잘못했다고 빌지 않을 수 없었다. 「사하촌」, 「낙동강 1」, p.33.

“가면 알 테지.”

말이 차차 험해진다.

“난 주재소 불러갈 일이 없습니다. 죄지은 일은 없습니다.”

고서방이 뒤로 물러서니까,

“이놈이 무슨 잔소리냐? 가자면 암말 말고 가지 그저.”

순사는 고서방의 어깨죽지를 한 대 갈기더니, 어느 새 포승을 꺼내 가지고 묶는다.

「사하촌」, 「낙동강 1」, p.35.

곰보나 고서방 같은 순직 백성들은 지은 죄가 없어도 순사나 주재소가 그저 두렵다. 순사는 정당한 권리 행사를 도와주거나 인권을 지켜주는 본연의 역할을 하는 대신에 권력자의 편에 서서 억압과 굴종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그물」에서는 뺨 묻은 옷을 입은 고소 당사자인 또쭤이는 아예 주재소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면서 일방적으로 사건을 처리한다. 「사하촌」에서는 살인자나 마찬가지로 산지기를 두둔하고 가동 할머니를 미치게 만드는 것이 보광사 주재소 순사다. 「기로」에서는 ‘삼 년이나 걸려서 쌓아 올린 저수지 언막이가 하룻밤 사이에 죄다 무너’지자 김만식의 사주에 의해 무죄 석방될 두보를 ‘제일 먼저 쳐 넣은’ 것도 순사다. 정당한 법 집행이 아니라 마구잡이 연행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힘과 권력을 가진 자가 힘없는 자에게 가해하는 전형적인 모습이다.

순사에 대한 가해자로서의 부정적 시각은 광복 이후에 나온 「어둠 속에서」와 「지옥변」, 「위치」, 「사똥재」에서 완전히 파헤쳐지고 있다. 위의 작품에서 순사는 「어둠 속에서」의 ‘사단’과 「지옥변」에서의 ‘불칼’, 「위치」에서의 ‘배코머리’처럼 이름부터 다르게 불려진다. ‘사단’이란 점도 4단의 무술경관을 이르는 말이다. 김은철 교사를 피칠갑하게 만드는 바로 그 장본인으로 고문기술자라 불릴 만한 인물이다. 고문의 후유증으로 하혈하는 김

31) 김정환(1971), 「인간단지」, 한얼문고, P.4.

인철에게 일본인 담당은 방석을 넣어주는데 동포인 사단은 이를 도로 빼앗고 더욱 참기 힘든 고문을 가한다. 김인철은 동포의 확대에 더욱 분하고 비참해져서 눈물을 흘린다. '불칼'도 이름만 들어도 섬짓한 소름이 끼칠 정도의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정용으로 끌려간 아버지를 대신하여 차돌이가 끝까지 찾아가 복수를 결심하는 대상이 바로 '불칼'이다. 「위치」에서는 '어릴 때부터 일본인들의 배코머리는 싫어해 왔다. 군인 출신의 일본인들에게 그런 게 많았고, 지금까지 만난 배코머리의 일인들 가운데는 유달리 표독한 성깔을 지닌 사람이 많았다.'고 기술하고 있다.

성격 묘사의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름을 붙이는 것이다. 명명(命名)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생명의 부여이며, 활기를 주는 것이고, 개성의 부여이다.³²⁾ 김정한은 작중인물의 성격 창조에 있어서 이러한 명명의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고 보인다.

'쇠다리', '팽이' 같은 마름의 별명이나 '똥개' 같은 십장의 별명과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별명이 바로 '사단'이나 '불칼' 같은 순사의 별명이다. 김정한은 이외에도 부정적 인물에 해당하는 가해자는 인상을 분명히 드러나도록 명명하고 있다. 「뒷기미나루」의 '눈딱부리', '딱벌레', '말대가리'나 「인간단지」의 '메기 아가리'나 「산거죽」의 '똥파리'는 인간이 혐오하는 동물의 이름으로 명명하였다는 점에서 결국 같은 인간형임을 말해준다.

1940년 김정한이 남해군 남명 공립보통학교로 전임된 뒤 우리말 교육이 불가능하게 되고, 일제의 압제가 심하여지자 교원 사표를 내고 동아일보 동래지국을 인수한다. 지국 일에 전념하던 중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피검되기도 하다가 8월에 동아일보가 강제 폐간 당하면서 작가는 붓을 꺾게 된다. 이 때의 경험을 작품화한 것이 1975년에 발표한 「위치」이다. 여기의 안타고니스트인 배코머리는 인상부터가 벌써 일본인의 냄새를 강하게 풍기고 있다.

오라는 곳은 물론 한국인의 사상 관계를 다루는 고등계란 데였다. 이름만 들어도 정나미가 떨어지는 곳이다. 「위치」, 「낙동강 2」, p.400.

“당신이 새로 온 지국장이요? 거기 좀 걸치시오, 지국장님!”

32) R. Wellek and A. Warren, 송관식·윤홍로 역(1982), 「문학의 이론」, 한신문화사, p.282.

이렇게 능청을 부렸다. 직업에서 얻은 버릇일 테지만 잠깐 훑어보는 듯한 그의 눈 초리에는 식민지 백성을 대하는 소위 본토인의 티가 완전히 나타나 있었다.

명함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나는 그저 그렇다고 대답했다.

“지국을 맡았음 한 번 들러 주셔야죠. 물론 바빠서 못 오셨을 테지만…….”

배코머리는 내쳐 능글맞게 이런 투의 자문자답을 하면서 담배를 꺼내 물더니, 내게도 권했다. 나는 아니꼬워서 내 걸 피워물었다. 「위치」, 「낙동강 2」, p.401.

배코머리는 이상한 미소를 지으며 넌지시 이쪽의 눈치를 살피면서 온갖 것을 미주알고 주알 넘겨 집는다. 식민 지배자 일본인의 전형이다. 강자에게는 눈치를 보다가 약점을 잡아 뒤집어엎고 약자에게는 한없이 강한 가해자의 전형적 모습이다. 배코머리는 ‘동아일보 독자 명단을 만들어서 우선 말랑한 사람들부터 찾아가 신문을 꿰도록 들쭉신다든가, 술도가 같은 데서 신년 축하 광고 내는 것까지 방해를 한다.’ 그밖에도 지국 사무실을 빌리지 못하도록 온갖 압력을 행사하고, 하수인인 경방단을 시켜 배달 소년을 테러하고 신문을 빼앗아 달아나게 한다. 신문기사 내용을 가지고 시비를 걸다가 모자라서 한밤중에 동아일보 지국 간판을 떼어내 훔쳐가 버리고 드디어는 밀린 구독료를 받기 위해 사람들을 모은 것을 기화로 손목에 쇠고랑을 채워 수감해 버린다. 식민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신문 따위는 필요가 없는 것이다.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가해자의 생리이기도 하다. 결국 배코머리라는 생김새는 단순히 머리를 면도로 밀어버린 얼굴 생김새에 대한 묘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일제의 순사 이전에 한 걸을 더 나아가 상대방의 눈을 가리면서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가해자의 전형적 모습이다.

그와는 반대로 순적 백성의 경우에도 얼굴 생김새가 그대로 이름으로 바뀌어 개성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다.

만두할멈은 이도 없는 입을 오물오물 오그랑 쪽박상을 우습게 실룩거렸다. 「옥심이」, 「낙동강 1」, p.71.

만두할멈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해주는 대목이다. 이가 없으니 얼굴 근육이 쭈그러들고 입술 주변이 오무라들어 마치 만두를 빚은 것처럼 보인다. 무슨 다른 이름이 더 필요 없

다. 만두처럼 보이니 만두할멈일 따름이다. 거기에는 억지로 꾸며서 만든 가식이란 것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거창한 뜻을 가진 한자이름이 아니다. 그저 보이는 대로 표현하면 그것이 바로 이름이고 개성이 된다. 개성 표현은 걸모습만이 아니라 성격을 드러내기도 한다. 「기로」에서 두보와 같은 석수장이 거칠이라는 이름도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두보가 맞고 온 그날 저녁, 같이 온 양서방은 가만히 있는데 거칠이는 두보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가세!”하며 팔팔하게 설쳐댄다. 우물에서 승능 달라는 격으로 성질이 급하고 거칠다. 그래서 이름도 거칠이다. 「수라도」에서 가야부인은 절 일에 경험이 있는 목수대신 친정에서 부리던 텃석부리를 시켜 절을 짓게 한다. ‘텃석부리는 언제나 변함이 없는 텃밭한 사람이었다.’ 그저 허허거리며 웃어대면서도 일 하나는 야무지게 해놓는다. 보조적 인물에 불과한 만두할멈이나 거칠이, 텃석부리는 가해자는 아니지만 또쥔이나 들깨처럼 이름을 통하여 고유한 개성을 쉽게 드러내고 있다. 에펠레이션의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여 작품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는 것이다.

「사밭재」에 등장하는 순사는 노골적으로 빼앗아가는 수탈형 순사다.



“배미술?요—‘메이슈[養命酒]’다나!”

넓적이는 이렇게 일본말로 꼬리를 달면서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러고는, 바로 그의 곁에 새침하게 앉아 있는 또 한 사람의 순사를 돌아보면서 일본말로 무어라고 중얼거렸다. 동행인 듯한 사내는 면도 자리가 파르족족한 것이 누가 보더라도 일본 사람에게 틀림이 없었다. 넓적이의 말을 들으며 슬그머니 이쪽을 훑겨보는 눈길도 없었다.

“그래, 영감 지금 어딜 가는 길이요?”

넓적이는 송노인 쪽으로 다시 시선을 돌렸다. 벌써 그의 턱가래 같은 얼굴의 어느 구석에도 아까와 같이 빙글거리는 빛이라고는 요만큼도 남아 있지 않았다. 어느 새 밀주나 낫그릇을 뒤지러 다닐 때의 그런 사람들의 기색으로 되돌아가 있었다. 「사밭재」, 「낙동강 2」, p.360.

팔순에 가까운 송노인이 얼마 못 살 누나를 위하여 약이 되는 뱀술을 소중히 가져가고 있다. 처음 타는 목탄 버스에서 가랫날처럼 얼굴이 넓적한 순사가 수작을 걸어온다. 그리고는 맘대로 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면서 강제로 빼앗고 만다. 명분은 성스러운 출전을

축하하기 위해 학도병으로 지원해 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다. 그 학도병들이 일본군이 되어 독립군으로 간 손자 상덕이를 쓸지도 모르는데 넓적이 순사의 말을 따라 술을 내놓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식민지 백성의 설움이다. 더구나 송노인의 자형이 창씨개명에 응하지 않고 있는 점, 손자가 학병을 피해 독립군에 간 일 등을 은근히 들추며 압박을 가한다.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무조건 빼앗아버리고 마는 것이 그 당시 순사의 속성이라 할 수 있겠다. 수탈형 가해자의 전형적 모습이다.

한편, 작가는 순사나 주재소에 대하여 항상 수탈의 대명사로 부정적으로만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축생도」의 경우에 보면 순사 앞에 ‘학사’라는 말이 붙어 있긴 하지만 순경에 대하여 오히려 따뜻한 시선을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의사가 분통이의 젓 수술을 해 준 며칠 뒤 뜻밖에 경찰에서 젊은 경관 한 사람이 찾아왔더라는 것이었다.

“저- 댁에서 며칠 전 사람 수술을 했다면요?”

하는 품이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수의사는 경찰에 불려갔다. - 왜 수의사인 주제에 사람 수술을 했냐는, 말하자면 국민의료법 위반을 들고 나왔다.

다행히 취조를 맡은 사람이 학사순경이었기 때문에, 환자가 긴급을 요하는 상태였다 해서 ‘위법성의 저각이란 조목에 해당시켜 주어서 벌은 받지 않게 되었지만, 보건소에서는 그건 그거지만 영업을 할 수 없다면서 그에 간판을 떼어 갔다. 말하자면 밥줄을 뺀 셈이다. 「축생도」, 「인간단지」, p.77.

물론 시대가 식민지 상태가 아니라는 점도 작용했겠지만 순사라고 무조건 나쁘다고 부정하지 않고 있다. 선택적 긍정이랄까. 이러한 선택적 긍정의 태도는 일본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우리를 지배하는 식민지 수탈자로서의 부정적인 모습이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예외적인 작품도 있다. 「산서동 뒷이야기」에 나오는 ‘이에리쌍’이 그렇다.

이에리쌍은 일본인이면서도 피해자이며, 조선인과 똑 같이 행동하며 저항하는 인간형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의 작품에는 직업이나 국적에 의해서 도식적으로 가해자의 공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성격을 중심으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생김을 알 수 있다. 「낙일홍」에서 같은 교사이지만 요다 사부로는 가해자로, 박재모는 피해자로 그려지고 있

다. 순사도 마찬가지이다.

6. 친일 조선인의 빠른 변신

위에서 가해자로 나오는 지주, 중, 마름, 순사 등은 모두 친일 성향을 지니고 있다. 그들은 모두 권력을 누가 가졌느냐에 따라 권력이 있는 쪽으로 움직인다. 식민지 시대의 권력자는 바로 일본제국주의이다. 따라서 그들의 측수는 일본의 움직임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 친일파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대로 지주, 중, 마름은 경제적 수탈자로서 가해자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이 장에서는 경제적 수탈의 모습만이 아니라 정신적, 문화적 가해의 모습을 살펴보자.

까만딱지 또쫄이가 (야학당의-인용자)큰방으로부터 돌아왔다. 더떨더떨 자란 머리털 위에 분필가루를 허영게 쓰고—서른 세 살로서는 엄청나게 늙어 보이는 얼굴이었다.

이렇게 소위 콧등이 센 놈들은 저녁마다 야학당에 모여서 그날그날의 피로를 잊어가며 잡담도 하고 농담들도 하다가는, 또쫄이로부터 일본의 탄광이야기도 듣고, 또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는 소작쟁의 얘기도 들었다. 「사하촌」, 「낙동강 1」, p.59.

자칫하면 동네 집회소—이 야학당에다 사람들을 모아 놓고, 소위 사상선도의 연설이 있곤 하였다. 그러나 연설만으로 어떻게 될 리는 만무하였다. 더구나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교풍회장 쇠다리 주사나 진흥회장 진수 따위가 씨부렁대는 설교에는 이제 속을 사람이 없었다. 「사하촌」, 「낙동강 1」, p.60.

같은 야학당을 두고 이용하는 방법은 천양지차가 있다. 또쫄이는 문명퇴치를 위해 ‘불가하지 같은 야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들깨와 철한이 곰보 고서방같이 ‘동네서 콧등이 세고 어긋한 놈들은 벌써 버릇이 되어서 의논이라도 한 듯이’ 저녁이면 슬슬 야학당으로 모여든다. 거기에서 ‘또쫄이로부터 일본의 탄광 이야기도 듣고, 또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는 소작쟁의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꿈벅거리’거나 입을 다물고 듣고 있다. 이들에

게 야학당은 마음놓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다. 동시에 성동리 밖의 세상에 접할 수 있는 정보의 열린 공간이다. 거기서 그들은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고 바른 세상을 위한 결사의 결의를 맺을 수도 있다.

그러나 교풍회장인 쇠다리 주사나 진흥회장인 진수는 야학당에 사람을 모아놓고 속이 뻘뻘히 들여다 보이는 설교를 한다. 소작료는 물론 당장 저녁의 끼니가 걱정인 순직 백성들에게 마름들의 이런 설교가 먹혀 들어갈 리가 없다. 쇠다리 주사나 진수는 일본의 조종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는다. 소작료를 걷어들이고 간평을 하는 마름 본연의 일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야학당에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모두가 거부하는 사상선도의 연설을 하고 있다. 연설의 내용은 「사하촌」에서는 나와있지 않지만 「지옥변」에서 말해지고 있다.

친일 조선인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은 문단 복귀 이후에 발표한 「지옥변」이다.

‘산바 가라스’란 권동준, 아니 곤도오 교장을 비롯해서 그곳 주재소의 차석으로 있던 불칼이란 별명의 보꾸보도(본성은 박씨) 순사와, 소위 황민화(皇民化=日本臣民化) 운동의 앞장을 서던 ‘녹기연맹’(綠旗聯盟)이란 친일 단체의 대의원인 동시에, 반일사상을 가진 동포를 마구 조지던 ‘경방단’(警防團) 단장으로서 소위 생필품(生必品) 배급소까지 경영하던 하세가와(본성은 윤가였지만 하세가와란 일본인의 양자로 들어갔다던가.) — 이 세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산바 가라스란 말은 ‘세 마리의 까마귀’란 뜻이다. 「지옥변」, 「인간단지」, p.190.

「지옥변」에는 세 사람의 친일파의 친일 활약상이 창씨개명부터 공출 독려, 징용보국대, 여자정신대, 일어상용(집 문패 위에 ‘고꾸고노 이에’(국어의 집)이란 함석 조각이 붙어 있다.), 일본 군가 부르기, 독립운동자의 유족 쫓아내기, 불은청년 고발하기, 일본인과 조선인 배급 차별하기, 아주까리며 송탄유 공출하기 등을 자행하는 모습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친일파들의 이런 활동을 독려하는 내용에서 「사하촌」의 사상선도 연설도 이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광복 이후 그들은 차돌이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변신한다. 조선 사람인 곤도오 교장은 일본어를 쓰지 못하는 어린이를 혹독하게 처벌하고 학부형에게도 일본어를 써서 말하여 교감에게 통역을 시키던 인물이다. 태극기가 등장하는 날, 곤도오

교장은 권동준으로 재빨리 돌아와서 어느새 한복을 차려입고 조선말로 유창하게 연설을 한다. 그러다가 차돌이가 구두통을 메고 찾아간 부산 시내의 상업고등학교 교장이 되어 있다. 일본인에게 양자를 들어 친일단체의 대의원이며 동시에 일제 경찰의 보조기관인 경방단 단장으로 배급소를 하던 하세가와는 광복이 되자 어느새 대한 ××당의 군 대가리가 되어 있다. 차돌이 아버지를 기어이 징용하여 전쟁터로 내몰았던 ‘징용차사’라는 별명을 갖고 있던 보꾸보도 불갈 순사는 광복 소식을 듣고 밤중에 도망갔다가 붙들려 민족반역자 재판까지 받았다. 그러나 어느새 ××청년단 지부장이 되어 가지고 제국시절보다 더 잘 되어서 곧 국회의원에 나갈 것이라고 한다. 식민 지배가 끝나고 광복이 되었지만 순적 백성들에게 세상이 달라진 것은 보이지 않는다. 식민 시대의 순사는 지금도 역시 순경이고, 유력자는 지금도 역시 유력자에 머물러 힘을 발휘하고 있다. 가해자는 세상이 바뀌어도 역시 가해자이다.

하세가와가 단장으로 있던 경방단에 대하여서는 「위치」에 잘 서술되어 있다.

경방단이란 단체는 거의 한국인으로 조직되어 있었다. 일본 사람들로 재향군인회란 것처럼 정부나 경찰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던 만큼, 개중에는 일반 한국인에게는 배급을 주지 않던 설탕 부스러기 따위 찌꺼기 얻어 처먹는 재미로 왜놈들의 부추김을 받아서 고자질이나 행패를 일삼고 다니는 놈도 없지 않았다. 게다가 재복이 검고 모임도 대개 밤에 갖고 있었기 때문에 빨쥐떼(박쥐떼)란 별명까지 붙어 있었다. 「위치」, 「낙동강 2」, p.419.

하세가와란 괴물 노인이 차돌이가 다니던 국민학교의 국기계양대에까지 업혀와 ‘국기 아래서 나는 죽으리!’라고 중얼거리고 일장기를 우러러보며 죽는 것도 녹기연맹원이며 경방단장인 그 아들의 수작이었음이 밝혀진다. 아버지의 죽음을 이용하면서까지 그런 충성 서약을 해야 유지할 수 있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친일 조선인의 진상이다. 그러면 서도 그들은 약한 자에게는 더할 수 없이 강하게 친일을 강요한다. 일본 아이들에게겐 신기 좋은 운동화를 배급하고 조선 아이들에게는 시꺼먼 고무신만 주어 오던 배급소가, 물건이 딸리고부터는 조선인 전용인 그 고무신마저 일본애들에게만 배급한다. 그런 하세가와가 일제가 물러가고 광복이 되자 국회의원이 되려 하고 있다. 이런 변신은 「수라도」의 이와모도 참봉의 아들 이와모도 경보부의 변신과 너무도 꼭 같다. 독립군을 잡던 고등계 형

사의 하수인이었던 이와모도 참봉의 아들은 광복이 되자 어느새 국회의원이 되어 있다. 즉 이런 청산되지 않은 역사와 처벌받지 않는 변절자는 한 두 사람의 예외적인 일이 아니라 우리 민족 전반에 걸쳐 일어난 일반적 현실이라는 사실임을 말해주고 있다. 아니 광복이 되기 이전부터 이런 변신의 모습은 민족의 지도층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3·1운동 때는 독립선언서가 뭔가지 만들었다는 사람이든가, 그 때 앞장을 섰다는 사람, 그리고 글 잘한다고 소문난 누구누구들겨정 덩달아서, 학생들을 빨리 군에 나가 일본에 충성을 다하라고 떠벌이고 댕긴다니 과연 그럴 수가 있을까?

최후의 일인까지 싸워서 독립을 해야 한다고 열을 올릴 때는 언제고, 일본에 충성을 하자고 나발을 불고 댕기는 건 무슨 놈의 소갈머리들일까? 거기(그게) 소위 배웠다는 사람들의 할 일일까? **똥!** 「사뱃재」, 「낙동강 2」, p.365.

징병을 피해 피난 온 상덕이로부터 시국에 관한 여러 이야기를 듣고나서 엽전(조선 사람이 스스로 얹잡아 부르던 말이다) 신세 더럽게 됐구나, 왜놈들이 그러는 것은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송노인이 혼자 해보는 상념의 한 가닥이다.

작가의 부정적 시선은 앞에서 고찰한 일본인이나 일본인 순사보다 그들에 야합하는 우리들 같은 조선 동포에 더 모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일본에 야합하는 계층은 모두 알량한 권력을 가진 지식인층이다.

호동팔이란 이 오십이 넘은 상고머리의 사나이는 자기들 목수 사이에서도 종종 '호로새끼'란 욕을 얻어 먹었다. < 중략 > 가령 가장 정신적인 문제라 할 수 있는 종교 같은 것도, 일제 때는 꼭 일본사람들처럼 방에 불단까지 모셔 놓고 불교를 민노라(?) 하던 사람이 해방이 되고, 미국 사람이 많이 들어와 설치게 되자, 그것까지 형의 말을 좇아선지 갑자기 불단을 부셔 던지고 재빨리 교회에 나가는 따위가 다 그런 일례다. 그러한 일에는 정말 철저한 사나이일까? 그래서 그에겐 동팔이란 이름에 빚낸 '똥파리'란 별명까지 붙어 있다. < 중략 >

악질 집달리로 이름난 호동수는 그때 야바위쳐 걷어들인 재산으로 지금은 모 기관에 기부금도 내서 고문도 되고 시정 자문위원인가 뭔가지 맡아서 만만찮은 사회적 지위도 지닌 위에, 빌딩도 몇 채 가진 알부자지만, 한편 그의 쥐꼬리만한 법률 지식은 언제나 동생 동팔의 거드름을 뒷받침하고 있다. 「산거족」, 「인간단지」, p.305.

호동팔의 ‘호로새끼’나 ‘똥파리’란 별명은 ‘깡이’의 이시봉이나 ‘똥개’로 불리는 청부업자 안십장의 모습과 너무도 닮았다. 비슷한 이름으로 불려진다는 사실은 모두가 한 통속임을 의미한다. 나아가 광복 이후에 나온 작품으로 「인간단지」에 나오는 박원장, 「축생도」에 나오는 의사의 인간형에 바로 연결되는 인물유형이다. 이들은 모두 또 하나의 ‘꺼삐딴리’이다. 자기가 모시던 신까지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재빨리 바뀌낸다. 그러면서 ‘쥐꼬리 만큼이라도 권력을 가진 자라든가 무슨 잇속이 있을 만한 일에는 다랍게 달라붙고 알랑 거리는 성미’이다. 없는 사람들에게는 ‘당치도 않은 만용을 낸다든가 거드름을 피’운다. 그런 호동수가 가진 것은 쥐꼬리만한 법률지식이다. 즉 배운 사람인 것이다. 「산거족」의 프로타고니스트인 황거철은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서 대통령의 감사장을 받지만 소학교 밖에 나오지 못하여 뜨네기 장사로 연명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호동수의 직업인 식민 지배 아래에서 법원 집달리는 단순한 직업 이전에 식민지 경제적 착취의 제일선에 선다는 의미가 된다. 광복 직후 친일파로 몰리자 ‘우리 할배는 청국사람이고 우리 아베는 미국사람, 우리 엄메는 일본사람이다.’고 말하며 뻔뻔스럽게 버티나간다. 광복 후 한 때 친일파로 몰렸던 호동수는 한국 사람치고 친중, 친일, 친미 안 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식으로 늘 투덜거린다. 친일세력의 재등장은 「과정」에서 보여주듯이 꿈을 꾸면서도 “고-공출내요! 고, 공출!”이라고 외치는 일제 애국반장 출신의 교도소 간수로의 변신에서 절정을 이룬다. 작가는 순적 백성을 억압하는 가해자인 친일파가 처벌을 받기는커녕 광복 이후에도 새로운 집권세력에 빌붙어 출세하는 세태에 대하여 전방위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역사의식을 상실한 잘못된 역사의 흐름에 대하여 고발하고 폭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반민족적일 뿐만 아니라 반인간적이기조차 한 상황에 대한 통렬한 문학적 저항으로 이를 인간의 자리로 되찾으려는 피맺힌 시도이기도 하다.³³⁾

지금까지 고찰한 가해의 양상을 가해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가해를 하는 자들은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았고 사회적 공권력과 결탁이 되거나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권력이 정당한 것인가의 여부나 백성들의 삶을 위해 기여를 하고 있는가 따위는 이들에게 관심 밖이다. 교육을 받아서 전문적 지식을 갖

33) 김종균(1980), “김정한 초기소설연구”, 『논문집』 22집, 한국의국어대학교, p.55.

추고 있으며 그 전문적 지식을 이용해 권력에 가까이 다가가서 민중을 수탈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이들 가해자들은 모두 지식인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인물을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정리하여 보자.



Ⅲ. 가해자의 유형

이제까지 다양한 가해의 행동 양상을 작품 속 사회에서의 역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가해의 의도 및 목적에 따라 유형을 나누어보자. 식민 지배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같은 민족이면서 무엇 때문에 순적 백성을 괴롭히면서 가해를 하는가 하는 문제다.

이 연구에서는 가해자의 유형을 가해의 목적에 따라 첫째 권력 추구형, 둘째 부 축재형, 셋째 민중 수탈형, 넷째 체제 신봉형, 다섯째 폭력 행사형 등 다섯 가지의 유형으로 나누고자 한다.

1. 권력 추구형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권력 추구형 인물은 힘을 가진 자에게 무조건 아부하여 자신도 같이 힘을 발휘하려는 인물이다. 여기에 속하는 인물로는 「사하촌」의 진수와 이시봉, 쇠다리 주사, 「낙일홍」의 요다 사부로, 「그리한 남편」의 후지모리와 양주사를 들 수 있다.

보광사에서 기우제를 드리는 날 진수와 그의 어머니의 모습은 권력 추구형의 전형이다.

진수 어머니는 다 같은 보살계원을 밀어내고 들어서더니, 자기는 돈을 얼마나 냈는지 절도 열 번도 더 했다. 주지 부인을 보고, 어머니 어머니 하고 섰던 진수도, 남 먼저 쫓아나가서 대가리를 땅에 처박았다. 「사하촌」, 「낙동강 1」, p.46.

진수는 평의원 신분과 관계없이 절에 가서는 주지의 부인을 보자, 어머니를 버려 두고 달려가 큰절을 올리고 있다. 주지가 가장 권력이 있기 때문이다. 상황에 맞게 힘있는 자에게 달려 붙는 전형적인 권력 추구형 인물이다.

이시봉은 일제 식민지가 되니까 경찰관 주재소의 고자쟁이가 된다. 돈 대신에 양심을

팔아 마을 사람들의 일상을 감시 고발하면서 힘있는 자에게 다가가는 것이다.

이주사는 조선 말에 이미 쇠다리를 고을 원님에게 올리고 ‘주사’를 산 적이 있다. 이는 돈으로 권력을 사는 행위이다. 무조건 절을 올리거나 양심을 팔거나 돈으로 자리를 사거나 그 의도는 모두 권력에 가까이 다가가서 그 힘을 빌리려는 것이다.

요다 사부로는 슬리퍼로 학생들의 뺨을 때리고 주판으로 학생의 머리를 벌려 놓아서 동맹 휴학까지 당했으며, 여학생의 신세를 망친 적이 있다. 한마디로 그는 교직 부적격자이다. 그러나 워낙 상관에게 아부가 능란한 놈이라 무고히 학생 몇만 희생을 시키고 자기는 무사히 되었다.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힘있는 자에게 아부하여 덮어버리는 것이다. 그리고는 박재모 같은 힘없는 자에게 가해를 한다. 온갖 패륜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박재모가 터를 닦아 놓은 S분교에 부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도 교사도 아직 서 있지 않은 더 험한 갈고지 간이 학교로 박재모를 밀어내면서 발령을 받는다. 이는 평생 묵묵히 자기 길을 걸으며 학교를 일구어낸 박재모에 대한 더할 수 없는 박해이다. 그 바탕에는 바로 일본인이 하는 ‘전근운동’이란 단 한 번의 단어로 힘있는 자에게 빌붙는 요다 사부로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다.

후지모리와 양주사는 아유구용(阿諛苟容)할 줄 모르는 강신규를 배재하고 군청 사무를 독점하기 시작한다. 그 뒤에는 군수가 후지모리 편으로 기울어져 있다. 업무에서 강신규를 소외시키고 무능력한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다. 죽인 뒤에는 유서까지 뽑아서 부인에게는 보여주지도 않고 군수에게 갖다 드린다. 유서의 내용은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자기들에게 불리한 내용임에 틀림없다.

힘있는 자에게 달려가 절을 올리는 진수, 양심을 파는 주재소 고자쟁이 이시봉, 돈으로 주사 자리를 사는 쇠다리 이주사, 부적격자이면서도 일본인임을 내세워 박재모를 밀어내는 요다 사부로, 강신규의 업무를 가로채 가는 후지모리, 이들은 모두 권력추구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권력 추구형 인물이라 할 수 있다.

2. 부 축재형

부 축재형 인물은 오직 돈만을 위해서 행동하는 인물 유형이다. 이미 충분히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좀더 많이 소유하기 위하여 인간다움을 잃어버린 인간이다. 이 유형의 인물로는 「그물」의 박양산, 「항진기」의 칠촌 아저씨, 「사하촌」, 「옥심이」, 「추산당과 결사랍들」 등에 나오는 중들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주로 토지를 소유한 지주계급으로 돈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항진기」에서 두호는 부자인 칠촌아저씨를 ‘구리귀신’이라 부르고 있다. 구리란 엽전을 의미한다. 두호는 구리귀신의 돈을 발싸개에 비유하면서 경멸하고 있다. 그러나 그 돈이 없기에 홍수 같은 장마철에 산땀을 구하러 온산을 뒤지며 목숨을 걸고 헤매고 있다. 반면에 칠촌 아저씨나 두삼이는 돈이 있기에 뱃놀이를 즐기고 있다. 술 마시고 기생집에 누워 축음기 소리에 눈물 흘리고, 가시끼리(대절차) 자동차를 타고 구십 리 떨어진 절간에 복분자를 먹으러 간다. 백성들의 피눈물 나는 삶과는 아랑곳없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자의 전형적 모습이다.

「옥심이」에서는 소작인을 부역으로 동원하여 백암사에 들어오는 신작로의 진입로 공사를 한다.



역사가 길고, 돈 많고 산수 좋기로 유명한 백암사에서는 자동차의 통래가 자유롭도록 봄 들자 이 공사를 시작했다. 그래서 소작인들에게 무리한 부역을 통고하고 똥개란 별명을 가진 거머무트름한 청부업자에게 일을 맡겼던 것이다. 청부업자측에서는 샅전 안 드는 이 순적 백성들을 혹독한 물매로써 눈도 못 뜨게 뒤북아댔다. 「옥심이」, 「낙동강 1」, p.68.

소작인들은 내년에 다시 눈을 부치려 하니 울며 겨자 먹기로 백암사의 강제 부역에 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아무런 보수 없이 무리한 부역에 동원되어 청부업자에게 혹독한 물매를 맞으며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백암사의 중들은 돈도 안들이며 소작인들을 시켜 길을 닦고 그 길로 더 많은 신도를 불러들여 부를 쌓아갈 것이다. 오직 돈을 추구하는 중들의 모습이다.

이런 축재형 인물은 광복 이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작품에서도 토지 소유와 관련지어 자주 등장한다. 「유채」와 「어떤 유서」, 「모래톱 이야기」의 유력자, 「인간단지」의 박원

장 등이 바로 부 축재형 인간의 대표라 할 만하다. 애국 사업자로 자타가 공인하는 음성 나환자 수용소인 자유원 원장인 박성일 원장은 나협 회비 수십만 원, 구호양곡 6천여 포대, 구제 양곡 5백 포대, 치료 약품 3천여 점을 빼돌리는 등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3억 이상의 재산을 형성한다. 복지 시설의 수용자들에게 돌아갈 혜택을 가로채어 축재를 하는 것이다.

이들은 모두 이미 가지고 있으면서 더 많이 가지려는 부 축재형 인물들의 전형적 모습이다.

3. 민중 수탈형

민중 수탈형은 온갖 구실을 대면서 순직 백성들로부터 무엇이든 빼앗는 인물 유형이다. 이 유형의 인물로는 「그물」의 김주사, 「항진기」의 손마름, 「사뱃재」의 순사를 들 수 있다. 광복 이후의 작품으로는 「산거족」의 호동팔, X관 등이 그런 유형에 속한다.

일제 시대를 배경으로 한 소설에서 가해자의 유형은 모두 수탈형 인물이라 할 수 있다. 권력을 추구하는 자도 돈을 쌓아 가는 자도 폭력을 휘두르는 자도 모두 백성들로부터 빼앗아가며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 수탈행위가 드러나는 인물들만 추려서 민중 수탈형이라는 인물 유형으로 정하였다.

김주사는 돈 5원을 핑계로 또쥔이가 소작하던 논을 빼앗는다. 지주 박양산을 등에 업은 마름인 김주사는 온갖 술수를 써서 소작인의 논을 빼앗는다. 5원도 없어서 논을 빼앗길 또쥔이에게 50원을 구해오면 논을 소작하게 해주겠다고 한다. 그 논이란 알고 보니 또쥔이의 이웃 사람이자 친구이며 같은 소작인인 춘삼이가 지금 소작하고 있는 논이다. 같은 처지에 놓인 이웃간에 서로 이간질하여 자기는 중간에서 돈을 울궈내자는 수작이다.

손가란 마름은 다짜고짜로 논두렁을 바르고 있는 박첨지에게로 다가갔다.

“여보 박첨지, 어찌자고 이러오? 그만큼 말해 두었음 알 텐데 이게 무슨 짓이오? 억지로 이런다고 안 될 일이 될 줄 아오?”

<중략>

숨통이 터진 마름은 천둥에 개 뛰어들 듯 모내는 곳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아무도 거들떠 보는 사람이 없다. <중략> 그는 마침내 미치광이같이 아랫도리를 뚱뚱 걷어 올리고는 철버덕철버덕 무논을 가로질러 두호에게로 다가갔다.

“너 기어이 이럴 텐가?”

마름은 씨래질을 하고 있는 두호의 손목을 덜렁 잡았다. 「항진기」, 「낙동강 1」, p.134.

손마름은 소작인들에게 논을 경작하도록 하는 대가로 소작료 이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빼앗아 가고 있다. 그게 여의치 않으면 소작을 못 하게 한다고 협박을 일삼는다. 그리고 도 안되니까 폭력까지 행사한다. 지주를 등에 업고 군청과 주재소와는 이미 한 통속이 되어 있다. 소작인들로 하여금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게 미리 차단하는 것이다.

「사밭재」의 순사는 누이의 약으로 가져가는 뱀술까지 빼앗아 먹는다. 물론 죽음으로 대가를 치르고 있기는 하다.

호동팔과 X관은 황거칠 씨와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 이루어 놓은 산수도를 못 먹게 횡포를 부리고 자기가 차지하여 돈을 벌려고 한다. 생존의 기본 조건인 마실 물까지 독점하여 빼앗아 가는 수탈형 가해자의 표본이라 할 만하다.

4. 체제 신봉형

체제 신봉형 인물은 자기가 살고 있는 세계가 올바른 세계인지 아닌지 가리지 않고 무조건 지켜나가려고 하는 인물 유형이다. 어느 시대에도 보수적 지배자들은 거의 이런 유형에 속한다. 그들은 권력 체제가 바뀌면 자신도 재빨리 변모하면서 권력에의 끈을 이어나간다. 식민 지배자로서 일본인은 자신의 침략 논리를 합리화시키면서 지배체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여기에 동원되는 것이 바로 이런 유형의 인물이다. 「어둠 속에서」의 수미 교장과 야마가와 교사가 대표적이다. 친일 조선인들도 이런 유형의 인물이 많다. 「지옥변」의 산바 가라스 무리가 그렇고 「수라도」의 이와모도 부자, 「산거족」의 호동수가 여기에 속한다.

수미 교장이나 야마가와 교사는 교육자이기 이전에 일본 제국주의 이념의 전도사라 할 만하다. 학교 학생들의 교육적 환경이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위에서 지시하면 무조건 따라간다. 일터 상용, 동방요배, 조선어 교육 폐지 등에서 그들은 '법규와 명령에도 없는 사항도 과잉충성을 하느라고 식은 밥 먹듯 하려' 드는 판국이다. 그리고는 그들의 체제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시로 고발을 하고 있다.

'수미'씨는 매일같이 편지를 몇 통씩 썼다. 마치 그것이 교장으로서 해야 할 유일의 일이나 되는 듯이.

최서방의 말을 들으면, 이전보다 많이 내는 그 편지들 가운데 으레 한두 장은 도청 학부과나 군청 학무계에 가는 것이 있다는 것이었다.

"아마 김선생님에 관한 얘기도 적었을 거예요."

같은 저학년 담임으로 교실이 바로 걸인 데다, 지난 운동회 이래로 그와 더욱 가까워진 강이란 여교사도 이렇게 귀뜸을 해주었다. 「어둠 속에서」, 「낙동강 2」, p.339.

교장은 학교를 경영하여 교육을 바로 하도록 이끌어 가는 책임자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수미 교장은 동료 교사인 김인철을 고발하고 고자질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학교 교육 이전에 식민 체제를 유지하기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이런 고발에 의해 김인철이 잡혀가고 감옥에서 피질감이 되도록 고문을 당하는 것이다.

이와모도는 왜왕이 주는 '합방은사금'이란 것을 받아 양반인 체하다 오봉 선생의 장례식에서 낭패를 당하고 결국 죽음에 이른다. 그 아들은 일본 경찰의 고등계 경보부로 있다가 핑복이 되자 재빨리 변신한다. '해방 직후엔 코끝도 안 보이고 어디에 숨어 있느니 어찌느니 하는 소문만 떠돌더니, 뜻밖에 다시 경찰 간부가 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몇 해 뒤엔 어마어마하게도 국회의원으로 뽑혔다.' 산바 가라스 무리가 걸어간 길과 너무 꼭 같다. 정산되지 못한 역사가 가깝다준 비극적 현상이다.

체제 신통형 인물들은 모두 어떤 시대가 오든 항상 그 시대에 맞게 변신하면서 자신들의 입지를 넓혀갈 인물 유형이다.

5. 폭력 행사형

폭력 행사형 인물은 수시로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인물 유형이다. 「사하촌」의 이시봉과 산지기, 「기로」의 김만식, 「지옥변」에 나오는 불갈, 「어둠 속에서」의 사단이 이런 유형의 대표적 인물이다. 이들은 권력을 이용하여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사하촌」에는 사소한 폭력은 수시로 나오기 때문에 이루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이시봉이 늙은 과부 할멈의 허벅살에 시퍼런 멍울을 남기고 갔다'든가 '풋볼 차던 형식으로 곰보의 아랫배짤을 콧 질렀다'든가 하는 식이다. 이는 식민지라는 시대 자체가 폭력에 의하지 않고는 유지되기 어려운 시대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산지기는 사람을 죽게 만들고도 오히려 큰 소리를 친다.

개똥이가 세일 지수지 뒤의 가풀막을 올라갈 무렵이었다. 짐은 벽치고 다린 자꾸 왈왈 떨어져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듯이 잠깐 어름어름 하고 있자니까, 지만큼 떨어져 있던 만식이 가 급히 도와주거나 하려는 듯이 달려오더니 웬걸 짚고 있던 작대기로 개똥이의 엉덩이짤을 콧 질러 버린다.

“어, 억!”

개똥이는 자갈과 함께 앞으로 납작하게 곤두박이를 쳤다. 하마터면 은파는 그리로 달려갈 뻔하였다

“일어나, 이 자식! 사흘에 피죽 한 그릇도 못 처먹었나!”

만식은 구두 신은 발을 줄곧 들먹들먹하였다.

그래도 개똥이가 몸을 일으키지 못하니까 그는 작대기를 휘둘 후려들고선 사천왕(四天王)같이 부릅뜨며,

“이 녀석이 누구 앞에서 엉살을 부리는 거야?”

“아니, 아니, 나, 나, 나, 나리! 세-발 사, 살려줍—”

개똥이는 손을 겨우 빼어 들고 당황히 애원을 하였으나, 결국 몰강스런 매를 서너 대 얻어맞고서 간신히 일어났다. 「기로」, 「낙동강 1」, p.150~151.

힘이 없어 비탈을 올라가지 못하는 개똥이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작대기로 엉덩이짤을 찌르며 넘어지게 만든다. 인간적인 면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포악함 그 자체가

다. 김만식의 폭력 행사는 이것만이 아니다. 한밤중에 김만식과 같이 나간 두보가 거의 한 시간이나 지났을 때 얼굴에 피칠을 해 가지고 활등 같은 입을 악다물고 돌아온다. 이튿날 해가 반나절이 되어도 자리에서 쉬 일어나지를 못할 정도로 얻어맞은 것이다. 그 결과는 샅전이 내리고, 저녁에는 소주값이 올라가고 그저 그뿐이다. 결국 김만식은 반대파를 무너뜨리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가해의 가장 원시적인 방법인 폭력이란 수단에 의존하여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상에서 김정한의 소설에 나오는 가해자의 모습을 다섯 유형으로 나누어 보았다. 이들은 모두 자신만의 이익이나 조그마한 권리를 누리기 위하여 순직 백성을 다양한 형태로 짓누르면서 권력이 흐르는 방향을 쫓아간다. 그 결과 가해자들에게는 안락한 생활이 보장되지만 피해자들은 더 이상 살 수 없어 고향을 등져야 하거나 죽음의 길을 선택하게 된다. 작가의 시선은 주로 이들 피해자에게 쏠려 있다. 항상 패배자로만 피해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물」이나 「항진기」에서처럼 끝까지 버티며 싸우거나 「사하촌」에서처럼 집단적 저항을 통하여 이겨내기를 바라고 있기도 하다. 「낙일홍」이나 「어둠 속에서」처럼 설혹 잠시 패배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궁극에 가서는 이겨내리라는 것을 암시하기도 한다. 여기서 우리는 작가의 휴머니즘을 볼 수 있다. 이것이 김정한 문학의 힘이고, 그를 리얼리즘의 대표적 작가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동력이 된다.

그러나 이 연구는 여기서 각도를 달리하여 이들 피해자에게 가해를 하는 자들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가해자들은 식민지 시대는 물론 시대가 바뀌어 광복이 된 이후에도 엄연히 구체적 존재로 살아 있고 더 교묘하게 시대의 흐름을 타서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있는 현실을 살펴보았다.

IV. 결 론

지금까지 김정한 소설에 대한 연구는 작중인물을 피해자의 입장에서만 연구하여 왔다 하여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이는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가지의 해석이 요구되는 문학의 본질에 비추어 손실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김정한의 소설에 나오는 가해의 양상을 행동 양식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품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인들은 식민 지배자로서 직접 나서지 않고 하수인을 시켜 가해함으로써 저항의 칼날을 교묘하게 비껴가는 경우가 많다

둘째, 얼굴 없는 착취자 지주도 직접 나서지는 않지만 경찰, 관청 나아가 일제와 하나가 되어 일제의 경제 수탈을 도와주거나 방조하며 자기의 이익을 챙긴다.

셋째, 토지 소유자인 중은 노골적인 혐오의 대상이다. 일제의 대처승 정책 이후에 중은 경제적 수탈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전통적 가치를 무너뜨리는데 앞장서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넷째, 마름은 지배자의 첩병으로 행세하며 지주보다 한발 앞서서 다양한 형태로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산지기나 공사판의 심장도 마름의 변형된 모습에 다름 아니다.

다섯째, 순사는 초법적인 횡포를 부리는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 노골적인 수탈과 폭력의 집행자로 그려지고 있다. '사단', '불칼', '배코' 등 이름부터 공포감을 조성한다.

여섯째, 친일 조선인은 재빠른 변신으로 권력의 흐름에 따라 경제적, 문화적, 정신적으로 순적 백성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이들을 다시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힘을 가진 자에게 무조건 아부하여 자신도 같이 힘을 발휘하려는 권력 추구형, 오직 돈만을 위해서 행동하는 부 축재형, 온갖 구실을 대면서 순적 백성들로부터 무엇이든 빼앗는 민중 수탈형, 자기가 살고 있는 세계가 올바른 세계인지 아닌지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지켜나가려고만 하는 체제 신봉형, 수시로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폭력 행사형 등 다섯 가지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권력 추구형 인물은 「사하촌」의 진수, 쇠다리 주사, 「낙일홍」의 요다 사부로, 「그러한 남편」의 후지모리와 양주사를 들 수 있다. 부 축재형 인물은 「그물」의 박양산, 「항진기」의 칠촌 아저씨, 「사하촌」 등에 나오는 중들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지주이다. 민중 수탈형 인물로는 「그물」의 김주사, 「항진기」의 손마름, 「사뱃재」의 순사를 들 수 있다. 체제 신봉형 인물로는 「어둠 속에서」의 수미, 야마가와, 「지옥변」의 산바 가라스, 「수라도」의 이와모도 부자 등을 들 수 있다. 폭력 행사형의 인물 유형은 「사하촌」에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대표적으로 이시봉과 산지기를 들 수 있고, 「기로」의 김만식, 「지옥변」의 불칼, 「어둠 속에서」의 사단 등을 들 수 있다.

“사람답게 살아가라! 비록 고통스러울지라도 불의에 타협한다든가 굴복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사람이 갈 길은 아니다.” 「산서동 뒷이야기」에 나오는 이 글은 김정한의 좌우 명으로 알려져 있다. 부산에 있는 그의 문학비에도 올라 있어서 그의 삶과 문학의 지향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의 작품에는 많은 순적 백성들이 등장하여 온갖 부정과 불의에 짓눌리면서도 끝까지 저항하고 살아남는다. 그들 순적 백성들을 억누르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들 곁에서 같이 호흡하고 있는 배우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 연구는 배우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그 주변에서 하수인이 되어 순적 백성들을 억누르는 가해자 유형의 인물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가해를 하고 수탈해 가는지에 대하여 고찰하였고 나아가 가해자들을 가해 목적에 따라 유형 별로 나누어 보았다.

마지막으로 김정한 소설의 인물 유형 중 가해자의 입장에서 본 연구를 통해서 얻어지는 가치는 억울하고 뿌리 뽑히고 보상받지 못하는 자들의 대변자인 김정한 문학의 의의를 살리면서도 그 이면에 뿌리를 뽑고 수탈해 가면서도 보상해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회의 숨겨진 면을 발견해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균형 잡힌 시각으로 문학 작품을 대할 수 있고 문학의 다양성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자 료 >

김정한(1971), 「인간단지」, 한얼문고.

—— (1975), 「수라도」, 삼중당.

—— (1976), 「모래톱이야기」, 범우사.

—— (1977), 「사밭재」, 동서출판사.

—— (1977), 「인간단지」, 동서출판사.

—— (1994), 「낙동강 1」, 시와 사회사.

—— (1994), 「낙동강 2」, 시와 사회사.

—— (1994), 「삼벌초」, 시와 사회사.

—— (2000), 「김정한소설선집」, 창작과 비평사.

요산 김정한 선생 고회기념 사업회(1978), 「요산 문학과 인간」, 요산 김정한 선생
고회기념 사업회.

< 단 행 본 >

강동진(1980), 「일제의 한국침략정책사」, 한길사.

강만길(1984), 「한국현대사」, 창작과 비평사.

김영화(1977), 「현대한국소설의 구조」, 태광문화사.

나병철(1998), 「소설의 이해」, 문예출판사.

이재인·한용완·우한용(1996), 「현대소설의 이해」, 문학사상사.

정한숙(1975), 「소설기술론」, 고려대학교 출판부.

—— (1983), 「현대한국소설론」, 고대려대학교 출판부.

조남현(1983), 「소설원론」, 고려원.

조동걸(1978), 「일제하 한국농민운동사」, 한길사.

최상윤(1999), 「한국현대소설연구」, 동아대학교 출판부.

< 논문 >

구중서(1970), “리얼리즘문학의 지맥”, 「민족문학의 길」, 새밭.

김명인(1985), “민족문학과 농민문학”, 백낙청·염무웅 편 「민족문학의 현단계 IV」, 창작과 비평사.

김병결(1972), “김정한문학과 리얼리즘”, 「창작과 비평」, 1972년 봄.

김상수(1977), “김정한 농민문학의 성격”, 「국어국문학」 13·14집, 부산대학교.

김상일(1970), “토속적 인간상”, 「한국단편문학대계 IV」, 삼성출판사.

김양라(1993), “김정한 소설연구”.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대학원.

김영화(1975), “민족주의 문학의 제 양상”, 「현대문학」 1975. 5.

김인배(1977), “김정한소설의 문체연구”,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

김정자(1984), “모티브 구조로 본 김정한·이주홍 소설의 문체적 특성”, 「어문교육론」 8집, 부산대학교.

김종균(1989), “김정한 초기소설연구”, 「논문집」 22집, 한국외국어대학교.

김종철(1984), “저항과 인간해방의 리얼리즘”, 「한국문학의 현단계 III」, 창작과 비평사.

박덕은(1980), “김정한의 소설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재범(1995), “김정한 소설연구”,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종무(1987), “김정한 소설의 작중인물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박홍서(1986), “김정한소설 인물유형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백낙청(1973), “문학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 「창작과 비평」, 1973년 여름.

신경림(1983), “농촌현실과 농민문학”, 「농민문학론」, 온누리.

양연규(1987), “김정한 소설의 인물연구”,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염무웅(1979), “김정한소론”, 「민중시대의 문학」, 창작과 비평사.

이영선(1987), “김정한 작품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임현영(1972), “수난자의 문학”, 『월간중앙』, 1972. 5.

정경수(1996), “김정한 소설의 문체 연구”, 『국어국문학논집』 제7집, 동아대학교 문과대학.

조갑상(1991), “김정한 소설연구”, 박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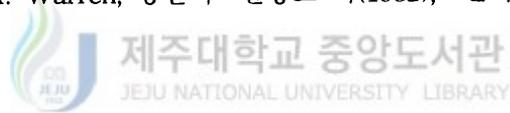
한동우(1990), “김정한소설의 작중인물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기 타 >

김정한 대담, “약자의 설움은 무엇인가?”, 『문학사상』 1973년 10월호.

<번역서>

R.. Wellek and A. Warren, 송관식·윤홍로 역(1982), 『문학의 이론』, 한신문화사.



<Abstract>

A Study On The Character of Kim, Jeong-han's Novel

-on the emphasis of the assailant type-

Shin, Deok-il

Korean Language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Moon, Sung-sook



So far most researchers have studied the character type of Kim, Jeong-han's novel from the standpoint of the sufferer. Kim, Jeong-han showed us that when he created character in novel, he expressed the pain on the basis of sufferer and existing life against the sufferers. Most researchers paid attention to the sufferer's center according to the writer's attitude.

But this was due to the actual state of the host as the center of the host of a novel. The novel did not always develop the story of the host. The deputy character and the main character, the surrounding, organized systematic construction. If we focused this point, we considered the sufferer as well as the assailant, called the antagonist in his work. Supposing we analyzed his work, we found new analysis by reading various novel.

This study made an analysis of the assailant type and investigated the standard and behaviour of the damage on the degree of the injury in his work within a colonial age background.

Japanese and landowners solved this difficulties by communicating their thought through the agent and the supervisor of a tenant farm. When they got

face with the others' trouble, they didn't help the misery, nevertheless, they plundered the land and changed themselves. Monks teased farmers, to say nothing of Japanese and landowners.

They took the rice field of others by dying a peaceful death with bait, moreover monopolized water in spite of the drought. The persons, called the supervisor of a tenant, the chief workman, the patriotic suicide, were not named people but animals. They did the pure nation harm below the human being. The writer's negative eye on the sufferer paid more attention to a pro-Japanese Korean rather than Japanese in the colonial ruler.

If we considered the assailant type, we divided into five types, in other words, the pursuit of power, the accumulation of wealth, the usurping of the human being, the adherent of the Establishment, the using of violence. They had something to do with the power and used their power by getting a fixed level education, usurped the human being and gained their benefit with contacting the assailant power.

In conclusio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haracter type in Kim, Jeong-han's novel with the focus of the assailant and made an attempt to various analysis with the balanced eye of his work.